

昭和八年五月一日發行（每月一回一日發行）
昭和七年五月一日（第三種郵便物認可）

言 話

第 八 號



本 號 要 目

朴勝彬氏의 所謂 硬音이란
「古」바침 問題

朴勝彬氏의
段活用說을 駁함

朝鮮語學會編輯

벼 리

- ◇朴勝彬氏의 所謂 硬音이란——
歷史上 聲音上 아무 根據가 없다(一).....申明均...(301)
- ◇「古」바침 問題.....李熙昇...(309)
- ◇풀이씨의 끝바꿈에 關한 論(二).....崔鉉培...(330)
- 本會 記事.....(344)
- 여쭙는 말씀.....(345)

訓民正音原本

定價 二十錢

送料 二錢

[寫眞版]

距今 四百八十六年前, 丙寅 九月二十九日(陽曆 換算則 十月二十九日)에 頒布되어, 오늘까지 우리가 使用하는 世宗大王 御製 訓民正音은 우리 朝鮮사람이 가진 世上에 들도 없는 寶物입니다. 世宗 때의 그 原本 四十餘頁이나 되는 것을 寫眞版으로 박어내어, 實費 二十錢(外郵稅 二錢)에 提供코져하오니, 이 千金難購의 重寶를 여러분의 案頭에 備置하기를 바라나이다.

松江歌辭

定價 二十錢

送料 二錢

松江歌辭는 千古有名한 文章으로 누가읽든지 興味津津한 것이다. 그러나 珍貴한 古書가되어서, 그것을 어더보기는 그러케 容易한일이 아니었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藏書家의 好意로 그 珍書를 어더서 縮刷해 가지고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다.

發賣所

京城府安國洞一五三
振替京城一二一七八

中央印書館

朴勝彬氏의 所謂 硬音이란—— 歷史上 聲音上 아무 根據가 없다

申 明 均

7. 허 두

ㄴ. 된소리의 聲音原理

1. 된소리의 내는 법
2. 된소리의 글자

ㄷ. 訓民正音의 規定

1. 된소리의 規定
2. 된소리의 用例

3. 소리의 系統과 글자

ㄷ. 並書의 發聲은 無識이 原因

1. 訓民正音의 열가지 規定
2. 된시옷, 된비음의 다른 規定
3. 된시옷과 된비음의 音價
4. 朝鮮글자의 象形

7. 허 두

朝鮮말의 된소리를 어떠한 方式으로 적는 것이 소리의 原理와 또는 歷史的 規定에 들어맞고 實用에 便利한 方式이 되겠는가 하는 問題는 이미 오래前부터 여러가지로 議論이 있어 오다가, 周時經氏 때에 와서 朝鮮의 된소리는 되게 나는 줄의 소리를 雙으로 쓰는 것이 옳겠다고 작정이 되었다. 꼭 말하자면 가字 줄의 된소리는 「까」로, 다字 줄의 된소리는 「따」로 쓴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이 소리의 原理로나 歷史의 規定으로나 가장 合理的 方式인 것을 믿어서 조금도 疑心이 없어 왔고, 또 지금도 아무 疑惑이 없는 바이다. 그리한데 요새에 朴勝彬氏라 하는 분이 증뿔나게 硬音이라는 새 말을 지어가지고 같은 글자를 雙으로 쓰는 것은 그른 것이라 主張하게 되었다. 勿論 그의 主張하는 바 論據가 무엇인 것과 이것에 對한 우리의 科學的 批判도 있으려니와, 위선 우리들이 周時經先生의 主張이 옳다는, 소리의 原理와 歷史上 根據를 들어 우리의 主張이 正當한 것임을 밝히는 同時에, 따라서 朴氏의 所謂 硬音이란 學的으로 아무 根據가 없음을 말하러 한다.

ㄴ. 된소리의 聲音 原理

첫째 소리의 性質로 본다 하면, 까까꺼겨...는 가가거겨...와 같은 系統의 소리요, 따따떠떠...는 다다더더...와, 뻘뻘뻘뻘...는 바바버버...와, 짜짜저저...는 자자저저...와, 씨씨씨씨...는 사사서서...와 같은 系統의 소리인 것은 訓民正音에 ㄱ·ㄴ은 牙音, ㄷ·ㄸ은 舌音, ㅂ·ㅃ은 唇音, ㅈ·ㅉ은 齒音, ㅅ·ㅆ은 齒音이라 한 것을 보아서도 明白히 알 수 있다. 그리하면 대체 이따위들의 된소리들을 내려 하면, 發音機關의 어떠한 生理的作用을 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할 必要가 있다.

가령 「뻘」과 「바」를 가지고 본다 하면, 「뻘」을 낼 적이나 「바」를 낼 적이나 입을 다물어서 숨을 막았다가 탁 터서 내는 것은 뻘·바가 서로 마찬가지로 되, 다만 서로 다른 것은 「뻘」을 낼 적의 숨의 막히는 분수가 「바」를 낼적보다 좀 더 막힘을 깨다들뿐이오, 또 「따」와 「다」를 가지고 본다 하여도 「따」를 낼 적이나 「다」를 낼 적이나 혀끝으



로 숨을 막았다가 탁 터서 내는 것은 따·다가 서... 다만 서로 다른 것은 「따」를 낼 적의 숨의 막히는 분수가 「다」를 낼 6818072 기 막힘을 깨닫게 되는 것이니, 이 숨이 더 막히게 되는 것은 콧 숨의 通路가 좁아지기 때문이다。그러하므로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發音機關의 生理的作用을 發見할수 있으니, 콧 까따빠짜싸들의 된소리는 그의 이사소리인 가다바자사들을 내는 그 자리에서 내되 숨의 通路 콧 숨구멍을 좁히려서 내는 소리임을 判斷할수 있으며, 또 聲音上으로 보아서도 ㄱ은 ㄱ과 같은 系統의 소리요, ㄷ은 ㄷ과, ㅂ은 ㅂ과, ㅈ은 ㅈ과, ㅊ은 ㅊ과 같은 系統의 소리인 것을 알수 있다。

본래 朝鮮의 된소리는 그 性質과 내는 機關의 짓이 이러한 소리이기 때문에 이 소리를 적는 글자를 訓民正音에 마련할 때에도 ㄱ系統의 소리는 ㄱ을 雙으로 적어 「까」로, ㄷ系統의 소리는 ㄷ을 雙으로 적어 「따」로, ㅂ系統의 소리는 ㅂ을 雙으로 적어 「빠」로, ㅈ系統의 소리는 ㅈ을 雙으로 적어 「짜」로, ㅊ系統의 소리는 ㅊ을 雙으로 적어 「싸」로 하여서, 그 소리의 系統과 性質을 글자 위에 나타내게 한 것이다。이것은 소리를 글자로 나타내는 態度로 보아서 가장 科學的 態度요, 또 소리를 글자로 나타내는 心理로 보아서도 가장 合理的인 일 줄 안다。왜 그러냐 하면 ㄱ은 ㄱ 하나보다 단단한 소리, ㄷ은 ㄷ 하나보다 단단한 소리인 것을 글자의 形體만을 보고도 알른 心理的 判斷을 얻게 하는 點으로 보아서 얼마나 合理的인 處理인지 모른다。이것은 우리 朝鮮사람뿐 아니라 日本사람들도 日本말을 英字로 적을 적에는 學校를 GAKKO, 六法을 ROPPO라고 적으며, 西洋사람들이 朝鮮말을 적을 적에도 까치는 KKACHI, 뿌리는 PPURI로 적는 것을 보면 같은 글자를 들씩 적어서 된소리 하나를 나타내려는 것은 글자의 心理로 보아서 共通한 現象인 것 같다。

ㄷ. 訓民正音의 規定

- 訓民正音を 보면 本文 맨 첫 줄에
- ㄱ을 갈바쓰면 並書 「𑖀」 𑖀字의 첫소리
- ㄷ을 갈바쓰면 「𑖃」 𑖃字의 첫소리
- ㅂ을 갈바쓰면 「𑖆」 𑖆字의 첫소리
- ㅈ을 갈바쓰면 「𑖉」 𑖉字의 첫소리
- ㅊ을 갈바쓰면 「𑖌」 𑖌字의 첫소리

같다고 하였다。우리가 이 規定을 가지고 본다 하면, 𑖀ㅃㅆㅈㅊ洪들은 𑖀ㅃㅆㅈㅊ洪들과는 서로 다른 어느 한 獨立한 소리인 것만은 分明히 알수 있으나, 그 소리를 적은 𑖀ㅃㅆㅈㅊ洪들의 字音이 지금에 와서는 當時의 字音과 달라진 關係上, 이 漢字音만 가지고는 𑖀ㅃㅆㅈㅊ洪들을 알른 무슨 소리라고 斷定하기는 좀 어려운 바이 있다。그러하나 이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이 같은 글자의 並書의 用例가 朝鮮말로 여러가지 古書에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그것들의 대강 用例를 들것 같으면 다음과 같다。(ㅊ의 並書 例는 들지 아니한다。)

◇龍飛御天歌

牙音의 된소리-濃音일수 밖에는 道理가 없다。만일 「ㄱ」이 牙音의 濃音이 아니라고 하면 牙音에는 소리로는 濃音이 있으면서 글자로는 濃音을 나타내는 글자가 없게 될뿐 아니라, 「ㄱ」은 牙音系統의 글자로서 나타낼 소리가 없어서 困難한 矛盾만을 이르고 만다。各系統의 소리들을 이와 같은 分類方式으로 보인다면 다음과 같다。

	平音	激音	濃音	鼻音
牙音	ㄱ	ㅋ	ㄱ	ㅇ
舌音	ㄷ	ㄸ	ㄷ	ㄴ
唇音	ㅂ	ㅃ	ㅂ	ㅁ
齒音	ㅅ		ㅆ	
	ㅈ	ㅉ	ㅈ	

訓民正音が 이처럼 소리의 分類를 네가지로 가른 것은 아니지만, 訓民正音에서 만든 글자를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소리의 實際를 따라 그 系統과 種類대로 글자를 별리 본다 하면, 이처럼 밖에는 달리 베풀 道理가 없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또 參考로 洪武正韻에서 여러 系統의 소리를 어떠한 方式으로 分類하였는가를 보여서 並書의 글자가 어떤 소리 種類에 붙을 것을 分明히 하려 한다。이 洪武正韻은 世宗 三十一年에 世宗大王이 崔恒을 시켜서 翻譯하신 것으로 名稱을 東國正韻이라 하였다。이 冊이 世宗大王 當時에 된 冊인 것과, 또는 訓民正音의 소리를 벌여 놓은 順序가 이것과 같은 點으로 보아 訓

民正音을 研究하는 때에는 貴重한 參考材料가 됨을 말하여 둔다。(並書問題에 參考될 것만 을 抄하여 적으려 한다)

洪武正韻

여기에서도 한 系統의 소리를 역시 네가지 種類로 나누었다。이것을 위에 分類한 것과 대볼 때에는 이러한 것을 發見할수 있으니, 여기의 全淸이란 것은 위의 平音과 같은 것이오, 次淸이란 것은 激音과 같은 것이오, 不淸不濁이란 것은 鼻音과 같은 것이오, 全濁이란 것은 平音도 아니오 激音도 아

	牙音	舌音	唇音	齒音	
全淸	見 견ㄱ	端 뉘ㄷ	幫 방ㅂ	心 심ㅅ	精 징ㅈ
次淸	溪 키ㅋ	透 툼ㄸ	滂 팡ㅃ		淸 칭ㅆ
全濁	羣 군ㄱ	定 뎡ㄷ	並 뽕ㅂ	邪 씨ㅅ	從 쥁ㅈ
不淸不濁	凝 하ㅇ	泥 니ㄴ	明 밍ㅁ		

닌 濃音의 밖에 붙을 자리가 없음을 깨달을수 있는 것이다。

ㅎ은 지금에 와서는 이미 없어진 소리다。그러하나 그의 소리만은 밝혀 두는 것이 必要하므로 여기에 두어 미디 적어 두는 것이다。본래 ㅎ은 洪武正韻에도 次淸소리이오, ㅎ은 全濁소리이니, 發音機關의 짓으로 본다 하면 ㅎ은 이사로 벌인 목구멍을 갈아서 내는 소리오, ㅎ은 ㅎ보다 목구멍을 좁혀 가지고 거기를 세게 갈아서 내는 소리다。그러하므로 이

소리는 마치 독한 燒酒를 마시고 「가」도 아니고 「하」도 아니게 목구멍을 바짝 좁히려 가지고 술을 세차게 내쉬는 소리가 곧 「하」의 소리니, 그러한 까닭으로 「하」行 소리는 대개는 가行으로 變하게 되고 만 것이다。

2. 並書의 말성은 無識의 源因

訓民正音에서 特別한 規定으로 朝鮮의 된소리를 적는 글자로 定하여 놓은 ㄱ ㅋ ㆁ ㅅ ㅆ 들이 오늘에 와서 이러니 저러니 하고 말성이 되는 理由는 대체 어디 잇는 것인가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싶은 일이겠고 또 알아 내야만 할 일일 것이다。그러하므로 나는 이 理由를 밝히기 爲하여 우선 訓民正音의 內容을 一一이 分析하여서 訓民正音이란 것은 대체 朝鮮의 말소리에 對하여 어떠한 規定을 세웠는가를 캐어 보려 한다。본래 訓民正音의 編纂制度는 글의 章節을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說明의 便利를 爲하여 節에 나누어 말하고자 한다。

訓民正音은 첫머리에 序文이 있고 그 다음에 本文이 있는데, 第一節에는 「ㄱ은 牙音이니 君(君)字의 初發聲과 같으니, 並書하면 𑖀(𑖀)字의 初發聲과 같으니라。」하고 죽 달아서 닿소리들의(子音) 내는 법과 된소리 적는 規定이 있고, 第二節에는 「ㅇ은 吞(吞)字의 中聲과 같으니라。」하고 죽 달아서 홀소리들의(母音) 說明이 있고, 第三節에는 「終聲은 復用初聲하나니라。」하고 바침의 規定이 있고, 第四節에는 「ㅇ을 唇音 아래에 連書하면 唇輕音이 되나니라。」하고 이미 어느 소리로 定하여 놓은 글자를 다시 어느 特別한 소리를 적기 爲하여서 符號로 쓰자는 規定이 있고, 第五節에는 「初聲을 습하여 쓸 적에는 갈바서 並書로 적으라, 終聲에도 같으니라。」하고 닿소리를 다른 것끼리 들쭉 겹쳐 한덩이로 적을 적에는 橫으로 짝을 맞추어서 並書하고, 바침도 들 바침인 때에는 역시 並書로 적으라는 規定이 있고, 第六節에는 「ㅇ, ㆁ, ㆅ, ㆆ, ㆇ, ㆈ에는 닿소리들(子音) 우에다가, ㆁ, ㆅ, ㆆ, ㆇ, ㆈ에는 닿소리들 右便에다가 붙여서 적으라。」하고 綴字의 方式을 規定하였고, 第七節에는 글자는 반드시 습해야만 成音이 되나니라。」하고 文字가 이루어지는 原則을 規定하였고, 第八節에는 「左便에 한 點을 찍으면 去聲이오。」하고 소리의 長短을 票하는 規則이 있고, 第九節에는 「漢音 齒聲에는 齒頭와 正齒의 分別이 있어서 ㄱ ㅋ ㆁ ㆅ ㆆ ㆇ ㆈ字는 齒頭に 쓰고。」하고 外國音을 적는 規定이 있고, 第十節에는 牙舌唇喉의 字는 漢音에 通用하나니라。」하고 自國의 소리도 外國音에다 通用할수 잇는 規定을 마련하였다。訓民正音에는 이와 같이 열가지의 規定이 작성되어 있다。

그러하면 무엇이 대체 된소리 規定에 對하여서 말성이 되는 것인가。그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꼭 우리들이 普通 말하는 된시옷이란 것(ㅅ, ㅆ, ㅅㄹ)과 된비읍이란 것(ㆁ, ㆅ, ㆆ)이다。當初에는 ㄱ ㅋ ㆁ ㅅ ㅆ 와 ㅅ ㅆ ㅅㄹ 와 ㆁ ㆅ ㆆ 와가 글자로나 소리로나 嚴正한 區別이 잇었을 것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차차 後世로 오며 소리가 變하고 글이 어지러워짐을 따라서 이 세가지의 소리는 거진 한가지 소리가 되다 싶이 소리와 글자가 한대 뒤섞이고 말았다。이것이 곧 된소리의 規定에 말성을 일으키는 原因이 된 것이다。

대체 된시옷과 된비읍이란 것은 訓民正音의 어떠한 規定을 따른 것인가를 먼저 상고할 必要가 있다。나는 이렇게 생각한다。이 된시옷과 된비읍은 訓民正音 第五節의 初聲을 습하여 쓸 적에는 갈바서 쓰라는 規定을 따르지 않으면 訓民正音에는 따를 規定이 없다고 생각한다。그러하므로 이 된시옷, 된비읍의 ㅅ과 ㆁ은 재가끔 제 본래의 소리를 가지고 쓰인 것이고, 결단코 第四節에 ㅇ을 唇音 아래에 連書하면 唇輕音이 된다는 規定과 같이 ㅅ과 ㆁ이 또다시 어느 符號로 쓰이지 않은 것만은 確實하다고 생각한다。

初聲을 습하여 쓸 적에는 갈바쓰라 한 訓民正音의 規定으로 보든지 된비읍, 된시옷을 가진 말들의 例로 보든지 이미 第一節에 된소리의 規定을 마련하고 또다시 아무 規定도 없이 된시옷, 된비읍으로 된소리를 적게 하였을 理는 없을 줄 안다。後世사람들이 된시옷, 된비읍을 並書의 規定과 같이 생각하는 것은 다만 朝鮮말의 知識이 없기 때문이다。이것은 申景濬氏의 訓民正音圖解와 柳僖氏의 諺文志를 보드라도 알수 있다。

◇訓民正音圖解,

正音 二十三母中 今俗所習 只 曉(호)見(견)等十三母 至於 匣(함)羣(군)等全濁聲 並以心 人字附書於左 如群(군)母以ㄷ書之 定(뎡)母以ㄸ書之 誤也(群定의 字音은 筆者註)

◇諺文志

全濁 廢於韻書 久矣 今俗婦女 若遇濁聲 皆從左邊之人 獨於心母(入) 避成雙形 而加日 左邊 是則違理不成形乎 曰非婦女創也 訓民本意也 亦理之所有爾 蓋濁聲 生於全清承本音之終者 如각가爲가까 갑바爲가빠 若以承心母之終 亦生濁聲 如갓가爲갓까 가바爲갓빠 心母之初 則以承幫母之終 亦生濁聲 如갑사爲갑싸 然其承本音者 上終來添下初爲雙形(觀上註可知) 其承心幫者 上終自在 而下初 有贅生者(亦觀上註可知) 故今從雙形 爲正理。

世界 여러 소리글자—表音文字 가운데서 朝鮮의 글자가 가장 科學的으로 되었다고 할 것은 다른 여러가지의 美點도 잇겠지만, 나는 그 글자의 모양이 곧 그 소리의 나는 시형—象形을 글자 위에 나타내서 소리의 시형글자—象形文字가 되게 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科學的인지 모른다。이를 더이하면 喉音의 「ㅇ」은 목구멍에서 낸다는 뜻으로 목구멍의 꼴을 시형한 것이오, 舌音의 「ㄴ」은 혀를 꼬부려서 낸다는 뜻으로 혀의 꼬부러는 꼴을 시형한 것이오, 또 같은 舌音의 「ㄷ」은 혀를 꼬불꼬불 늘려서 낸다는 뜻으로 혀의 꼬불꼬불 꼬부러는 꼴을 시형한 것이오, 唇音의 「ㅁ」은 입을 다물어서 낸다는 뜻으로 입을 다무는 꼴을 시형한 것이오, 齒音의 「ㄷ」은 혀를 앞니 앞에다 대고 갈아서 낸다는 뜻으로 앞니의 꼴을 시형한 것이오, 牙音의 「ㅇ」은 어금니 쪽에서 낸다는 뜻으로 어금니의 몸집은 뚱뚱하고 끝은 뾰족한 꼴을 시형한 것이다。이와 같이 朝鮮의 글자는 그 畫 하나가 空然한 것이 없다。글자를 마련할 때에 이처럼 細密한 생각과 注意를 가지고 만든 글자가 아무 規定과 意味가 없이 그저 덧대고 같은 소리를 「까」도 하였다。「싸」도 하였다, 「빠」도 하였다 하는 이따위 어지러운 짓은 到底히 잇으리라고는 생각할수 없다。「까」는 「까」로서, 「싸」는 「싸」로서, 「빠」는 「빠」로서의 區別이 잇었을 것이야 너무도 明白한 일이 아니었겠느냐。그러하므로 나는 朝鮮의 된소리는 같은 種類의 글자를 並書로 적는 것이 소리의 原理로나 歷史의 規定으로나 正當하다는 것을 믿어서 疑心치 않는 바이다。 —(未完)—

「ㅎ」바침 問題

李 熙 昇

第一 緒論

- 一. 文字에 對한 自覺
- 二. 從來의 바침規定
- 三. 朝鮮語의 本質과 바침
- 四. 새 바침의 必要

第二 本論

- 一. 「ㅎ」바침을 主張함
 - 1. 音理上으로
 - (가) 「ㅎ」음의 本質

(나) 「ㅎ」음과 他子音과의 關係

(다) 特히 破裂音과의 關係

(라) 略音의 關係

2. 語法上으로

3. 歷史的 根據로

(가) 訓民正音의 趣旨

(나) 古書의 記寫例

(다) 諺文志의 見解

二. 「ㅎ」바침 反對說의 批判

第一 緒 論

一. 文字에 對한 自覺

우리의 입으로 發하는 여러가지 種類의 聲音을 符牒으로 하여 우리의 思想을 媒介하는 言語는 決코 無條理, 無統一한 支離滅裂한 것이 아니오, 그 가운데에는 組織이 있고 體系가 세워진 法則이 있어, 항상 이에 統一되어 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言語는 不斷히 變遷發達하여가는 동안이라도 그 法則을 깨트리지 않는다. 設或 어떠한 法則을 깨트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때에는 어떠한 다른 法則에 包括되어가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無形한 言語를 有形한 符號로 表示하는 文字도 亦是 發音만을 表記함으로써 滿足하지 않고(嚴密한 意味에 있어서 發音을 忠實히 表記함은 不可能이다.) 一步를 더 나아가, 各個 單語는 言語의 性質과 法則에 依據하여, 그 發音을 表示하여 一定한 形式을 具有하게 하고, 이 形式에 內容 卽 語意를 삼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視覺을 通하여, 그 個語의 概念을 直截的으로 把握하기에 便利하도록 綴字를 行치 않으면 안된다. 卽 綴字는 發音만을 表示하는 것이 아니오, 同時에 語意도 表示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하여 그 綴字는 語法과도 一致하여 항상 統一된 法則에 支配되는 範圍內에서 可及的 發音을 忠實히 表記하기를 條件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는 綴字에 對하여 이와 같은 條件이 具備되기를 늘 要求하여 마지 않는 理性을 가졌다. 이것이 所謂 文字에 對한 自覺이다.

二. 從來의 바침 規定

그러면 이와 같은 文字에 對한 自覺은 從來의 朝鮮語 綴字上에 어떠한 變遷을 招來하였는가. 그 變遷하여온 자취를 더듬어볼 必要가 있고, 그 자취를 상고하기 爲하여는 우선 朝鮮語 바침에 關한 規定의 概略을 歷史的으로 暫間 살펴보지 아니하면 안될 것이다.

(1) 訓民正音의 規定。 訓民正音에는 新制한 二十八字를 列擧하여 그 音價를 說明한 바로 다음에

「終聲은 復用初聲 하나니라」

하는 말로 바침하는 規定을 베껴어 놓았다。 그런데 前記한 二十八字中에 初聲 으로는

ㄱ } 牙音, ㄷ } 舌音, ㅂ } 唇音, ㅈ } 齒音, ㅎ } 喉音, ㄴ = 半舌音, ㄹ = 半齒音。
 ㅋ } 牙音, ㅌ } 舌音, ㅍ } 唇音, ㅊ } 齒音, ㅎ } 喉音, ㄴ = 半舌音, ㄹ = 半齒音。

等 十七字가 있다。 그리하여 우리말의 終聲 卽 바침은 前記한 初聲 글자를 가져, 다 쓰라하는 融通性 있는 規定이니, 必要에 缺아서 初聲 글자中 一部分만 써도 좋고 全部를 다 쓸 수도 있다고 解釋된다。

(2) 訓蒙字會의 規定。 訓民正音에는 그와 같이 融通性 있는 바침 規定을 세워두었 으며, 그 當時에 刊行된 우리말로 된 書籍에는 初聲 글자 全部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大部分이 바침으로 쓰인 實例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무슨 理由인지 訓民正音보다 約 八十年 後에 中宗朝 사람 崔世珍이 編纂한 訓蒙字會에는 「初聲終聲通用八字」라 하여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等의 여덟字만 바침으로 使用할 것을 認定하고, 「初聲獨用八字」라 하여

ㅋ, ㆁ, ㆆ, ㆏, ㆑, ㆒, ㆓, ㆔

는 終聲으로 使用치 못하도록 制限하여 놓았다。 正音 頒布後 政府의 極盡한 保護와 獎勵에 順調로 자라나든 우리글은 燕山朝 때에 偶然한 筆禍事件으로 因하여 거의 絶滅할 慘境에 빠졌든 일이 있었다。 이 悲運을 挽回시키려한 이가 곧 崔世珍이오, 그는 當時에 權威 있는 學者였으므로, 그 후의 綴字法은 모두 이 訓蒙字會에 準據하게 되었었다。

(3) 巷間에서 常用되는 바침。 訓蒙字會에 規定한 方式이 近年까지 襲用되어 왔으나, 어느 때부터인지 그 中の 「ㄷ」바침도 마자 쓰이지 않게 되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일곱字만이 바침으로 使用되었었다。

그리고 이 外에 「들바침」으로는

리, ㄹ, 래

의 세가지가 古今을 通하여 쓰이어 왔다。

以上은 바침의 種類에 對한 變遷이니, 그 使用한 數갯로 보아서는 退步라고도 볼 수 있으나, 그 바침을 活用하는 方法, 卽 體言과 助詞, 用言의 語幹과 活用部를 區別하여 갈라쓴 것으로 보아서는 進步라 아니할 수 없다。 다음에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안 될 朝鮮語의 本質에 對하여 簡單히 말하려 한다。

三. 朝鮮語의 本質과 바침

朝鮮語의 音韻組織은 매우 發達되고 複雜하여 世界의 어느 나라 말보다도 많은 種類의 바침을 가졌다。 그러나 訓民正音이 처음으로 發表된 當時에는 表音文字를 새로 創

翻하여 가지고 아직 文字에 對한 自覺이 完全히 서지 못한 故로 發音만을 表記하기에 汲汲하였었다。그러하여 그 當時의 綴字法대로는 文法을 說明하기에 不便과 無條理가 여간 많지 않았었다。即 體言의 境遇에 있어서는

(甲)				(乙)		
바비	바븐	바블	바베	밥도	밥과	밥까지
수르미	수르문	수르물	수르메	수름도	수름과	수름까지
달기	달곤	달글	달게	닭도	닭과	닭까지
.....

上記한 (甲)의 경우는 發音만을 忠實히 表記하려 하였다。그러하다가도 (乙)의 境遇를 當하여는 바침을 올리 불이지 않을수 없게 되었었다。그러하여 다같은 「飯」, 「人」, 「鷄」의 意味를 表示하는 말로서 (甲)과 (乙) 사이에는 語形上 統一이 없을뿐 아니라, 同一한 格 (或은 職能)을 表示하는 吐(即虛辭)에도

비, 미, 기....., 븐, 문, 존.....,
 블, 돌, 줄....., 베, 메, 게.....

等을 使用하여 모양이 다른 無數한 形式을 갖게 되었다。이와 같이 無統一, 無法則한 綴字도 (乙)境遇와 같이 바침을 모두 올려붙이면

밥이, 밥은, 밥을, 밥에, 밥도, 밥과, 밥까지.....
 수름이, 수름은, 수름을, 수름에, 수름도, 수름과, 수름까지.....
 닭이, 닭은, 닭을, 닭에, 닭도, 닭과, 닭까지.....

와 같이 비로소 體言과 助詞(吐)의 限界는 明白히 區別될뿐 아니라, 同一한 意味를 가진 體言(밥, 수름, 닭.....)과 同一한 格을 表示하는 吐(이, 은, 을, 에, 도, 과, 까지....)는 一定不變한 統一된 形式을 具有하여 普通 妥當性을 갖게 된다。即 「食」의 意味를 表示하는 말은 「밥」만으로, 主格을 表示하는 吐는 「이」만으로 如何한 境遇에든지 通用하게 되므로, 우리는 一見하여 그 個語의 概念을 把握하기에 非常한 便益을 感하게 된다。이와 같은 文字意識이 次次 發達됨을 諳아 누가 規定하고 主張한 새 없이 古書에 있어서도 漸次 바침을 올리붙여서 쓰게 된 것이다。그러하여 「바비」나 「밥이」, 「바븐」과 「밥은」 새에는 發音上 何等의 差異도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以上은 體言의 境遇지마는 用言의 境遇도 同樣으로 訓民正音 創制 直後는

(甲)		(乙)	
머그면,	머거서.....	먹고,	먹지.....
이브면,	이버서.....	입고,	입지.....
살므면,	살머서.....	삼고,	삼지.....
.....

이와 같이 (甲)의 境遇에 있어서는 語幹과 活用部를 區別치 못하고 表記하다가, (乙)의 境遇를 表記하는 經驗을 쌓으므로 困하여, 또는 語幹과 活用部의 形式을 一定하게 統一하는 同時에 兩者間의 界線을 明確히 하는 便益과 理由를 自覺하므로 困하여 不知不識中에 바침을 올리붙여서

먹으면, 먹어서, 먹고, 먹지.....

입으면, 입어서, 입고, 입지.....

삶으면, 삶어서, 삶고, 삶지.....

.....

이와 같은 表記法이 自然 發達되게 된 것이다。이것은 우리의 理性이 言語文字에 對하여 要求하는 必然的 自覺이다。即 무엇에나 法則과 統一을 要求하는 人生의 本然性이다。그리고 이와 같이 體言과 助詞로 用言은 語幹과 活用部로 分解할 수 있는 것이 即 實辭와 虛辭을 綴字形式에 區分할 수 있는 것이 朝鮮語의 本質인 것을 알아야 한다。이 앞으로 도 우리는 이 必然的 要求 即 人間本然性에 順應되도록 言語文字를 整理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것이 朝鮮語의 本質을 闡明하는 所以다。

四. 새바침의 必要

이와 같은 文字에 對한 必然的 要求는 끊임없이, 그리고 좀더 切實히 徹底히 우리의 마음 속에 움지겼을 것이다。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우리 固有文字에 對하여 冷淡하였다。—아니 虐待하였다。그러하여 이것을 整理하려 하는 아무 意識도 갖지 않았었다。度外視하여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甲午更張에 이르러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우리는 모든 方面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文字에도 自覺이 생기게 되었다。그러하여 내 말은 내 글로 쓰자는 부르짖음을 따라 從前에 類없이 多方面에 우리글이 쓰이게 되었다。이 要求에 應기 爲하여 일어난 것이 綴字改訂運動이다。이것이야말로 決斷코 偶然的 일이 아니었다。그러하여 訓蒙字會 以後로 쓰이지 않던 홑바침(單終聲) 「스, ㅌ, ㅋ, ㄷ, ㅊ, ㅎ」와 近代에 와서 廢止된 「ㄷ」을 다시 바침으로 쓰고, 또 雙바침(重終聲) 「ㄴ, ㄹ, ㄷ, ㅌ, ㄷ, ㅌ, ㄷ, ㄷ, ㄷ, ㄷ, ㄷ, ㄷ」 등을 새 바침으로 採用하자는 부르짖음이 일어났었다。그 理由로는 從來에 쓰던 單音字의 바침만으로는 到底히 朝鮮語의 特質을 完全히 充分히 發揮시킬 수 없을뿐 아니라, 音理上으로, 文法上으로 處理하기 어려운 問題가 많이 생긴다。그러나 만일 새 바침을 採用할 때에는 이와 같은 困難은 一掃되고 만다。다음에 새 바침 中 單終聲의 語例를 보이면,

(가) 體言(名詞)의 새바침

ㄷ 날(穀), 맏(伯), 곧(處)

스 낫(晝), 젖(乳), 빚(債)

ㅌ 빛(光), 꽃(花), 낯(顏), 뗏(幾), 숯(炭), 닳(錨), 뚝(棹), 살갓(皮膚)

ㅋ 념(方), 부엌(厨), 칩(葛) (但 「칩」은 全南 方言이다)

ㄷ 갈(表), 곁(傍), 밑(底), 벌(陽), 밭(田), 글末, 물(陸), 솥(鼎), 살(股間)

ㅊ 쉼(薪), 숲(林), 잎(葉), 짐(藁), 앞(前), 옆側, 늪(沼), 무릎(膝)

(나) 用言(動詞, 形容詞等)의 새 바침

ㄷ 걷(收), 닫(閉), 돋(昇), 묻(埋), 믿(信), 받(受), 먼(延), 뻗(伸), 쏟(傾注), 얻(得), 뜯(扯).....(以上은 動詞)

곧(直), 굳(固).....(以上은 形容詞)

스 꽃(插), 맞(迎), 맺(結), 빚(釀), 잊(忘), 잣(澗), 젖(濕), 짖(吠), 찾(尋)

- 쪼(裂), 멎(止), 맞(被打), 꾸짖(叱), 부르짖(叫).....(以上은 動詞)
 못(惡), 갖(備), 낮(低), 늦(晚).....(以上은 形容詞)
 ㅅ.....쫘(縱), 쫘(逐).....(以上은 動詞)
 ㅆ.....붙(付), 흩(散), 맡(任, 嗅), 배알(吐), 부름(腫).....(以上은 動詞)
 갈(如), 얕(淺), 말(迫), 짙(濃).....(以上은 形容詞)
 ㅈ.....짚(杖), 갓(報), 덮(蓋), 엮(覆).....(以上은 動詞)
 깊(深), 높(高), 고심(願欲).....(以上은 形容詞)
 ㅊ.....낱(産), 넣(入), 놓(放), 쌓(積), 뺨(搗), 찡(搗春), 닿(辯), 닿(接).....
 (以上은 動詞)
 좋(好), 그렇(然), 이렇(如此), 저렇(如彼), 까랑(黑), 검달(黑), 노랑(黃)
 누렇(淡黃), 파랑(靑), 피렇(淡靑), 하얗(白), 허얗(白), 빨(紅), 붉(淡紅),
 뽀얗(淡白), 높다(高), 맑(淸), 멀(淡).....(以上은 形容詞)

以上에 例示한 새 바침을 採用하지 않으면 안될 理由를 좀더 具體的으로 말하여보
 자。

(7) 體言과 吐와의 關係

前節에서도 屢屢이 말하였거니와, 朝鮮語의 本質은 그 體言(名詞)과 吐(助詞)의
 限界를 明白히 區別하여 綴字하는 便이 理論과 實用에 가장 適合하여 文法整理上,
 讀書上 極히 便利하거늘, 만일 새 바침을 採用치 않고 從來의 表記法을 墨守할 時는
 다음과 같이 錯雜하게 된다。

(改訂)一(從來)	(統一되지 못하는 吐들)
밥(食)一밥.....	이, 은, 을, 에,.....도
낱(穀)一낱(나).....	디, 든, 들, 데,.....도
낫(晝)一낫(나).....	지, 즌, 즐, 제,.....도
꽃(花)一꽃.....	치, 촌, 출, 체,.....도
東녘一東녘.....	{ 키, 큰, 클, 케,.....도 히, 혼, 흘, 헤,.....도
겉(表)一겉.....	{ 디, 든, 들, 데,.....도 히, 혼, 흘, 헤,.....도
잎(葉)一잎.....	{ 피, 픈, 플, 페,.....도 히, 혼, 흘, 헤,.....도

以上の 綴字方式을 通覽하면

(1) 體言의 綴字形式이 一定치 못하고 變하는 境遇도 있다。

例. 穀, 낫도——나든, 處, 꽃과——고데, 晝, 낫과——나제, 乳, 젓도——저지
 結局 同一한 意義를 表示하는 個語에 「낫-나」, 「꽃-고」, 「젓-저」와 같이 두
 가지 形式이 잇게 된다。

(2) 同一한 格(職能)을 表示하는 吐도 統一이 없이 여러가지에 갈리게 되어 眩亂
 複雜하고 支離滅裂하여 아무 法則이 없어진다。

例. 主格吐에——이, 디, 지, 치, 키, 리, 피, 히.....
 目的格吐에——을, 들, 즐, 즐, 클, 들, 플, 흘.....

等이 사용된다.

(一) 디, 지, 치……等의 ㄷ, ㅈ, ㅊ等이 體言의 一部를 내려쓴 것이라는 文法的 解釋을 내린다면, 그 體言들의 綴字는 極端으로 無統一, 不一定한 地境에 빠지게 된다.

(二) 또 만일 디, 지, 치……等이 「이」吐의 變形이라 하면, 어떠한 말 밑에 어떠한 吐를 써야 옳을지 아무 規則도 서지 않게 된다. 이를테면 「穀」이나 「晝」를 意味하는 말이 모두 「낫」으로 表示될 境遇도 있고, 「나」로 쓰일 境遇도 있는데, 그 同一한 形式의 語幹 밑에 意味를 뺏아, 어떠한 境遇에는 「나즌」(晝는)이 되고, 어떠한 때에는 나즌(穀은)이 된다. 卽 同一한 「나」 아래 境遇를 뺏아 「즌」이 불고 「든」이 불게 되는 것을 文法上으로 說明할 아무 法則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새 바침을 採用해야 이 모든 말의 文法的 關係를 整理하여보라, 얼마나 簡單明瞭한 規則을 찾을 수 있는가.

(體言)	(吐)
밥(食)	+ { 이 은 을 에 …… 도
낫(穀)	
낫(晝)	
꽃(花)	
東 녯	
겉(表)	
잎(葉)	

以上과 같이 하면

(一) 體言은 언제나 一定한 綴形을 가지고 나타나는 까닭에 一見하여 곧 그 概念을 把握할 수 있다.

(二) 吐는 그 格에 依하여 한가지로 統一할 수 있다. 卽 主格을 表示하는 吐는 「이」만으로 어떠한 바침 밑에든지 共通적으로 使用된다. 은, 을……等도 勿論 마찬가지다.

(三) 語幹과 活用部와의 關係

朝鮮語의 用言(動詞, 形容詞等)은 그 本質上 이것을 實質觀念 卽 어떤 觀念의 中樞를 表示하는 「語幹」과 形式觀念 卽 어떤 觀念의 職能을 表示하는 活用部의 二部分으로 區別할 수 있으니, 綴字도 이 두 部分의 限界를 明白히 갈라하여야 文法整理上 또는 讀書上 至大한 便益이 있다.

지금 위선 새 바침을 容認치 않고 從來의 바침만에 依하여 用言의 活用하는 狀態를 살펴보자.

(改訂) — (從來) (統一되지 못하는 活用部)

- 먹(食) — 먹……어서, 어야, 으니, 으면, 고, 지, 덕니
- 맡(受) — 맡(바)…머서, 덕야, 드니, 드면, " " "
- 잊(忘) — 잊(이)…저서, 저야, 즈니, 즈면, " " "
- 좃(從) — 좃……쳐서, 처야, 초니, 초면, " " "

얕(淺)—얕..... { 러서, 러야, 르니, 르면, 고, 지, 덕니
 허서, 허야, 호니, 호면, " " "

값(報)—값..... { 퍼서, 피야, 프니, 프면, " " "
 허서, 허야, 호니, 호면, " " "

좋(好)—좋(조)..... 하서, 하야, 호니, 호면, 코, 치, 러니

以上의 綴字 方式으로부터 歸納한 結果는

(1) 語幹의 綴字 形式이 一定치 못하고 變化難測이다.

例. 受, 바더서—받고
 忘, 이저야—잊지
 好, 조흐면—좋치

(2) 同一한 職能을 表示하는 活用部의 形式이 統一이 없이 極히 亂雜하다.

例. 어서=덕서=저서=처서=러서=퍼서=허서.....
 으면=드면=즈면=츠면=르면=프면=호면.....

우리는 到底히 이와 같은 不統一, 無條理한 綴字法을 그대로 달게 여길수는 없다. 어떻게 하든지 法則 있고 合理的인 方法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바침을 主張하지 아넣지 못하게 되나니, 지금 그 活用形을 다음에 보이면

(語幹)	(活用部)
먹(食)	} 어서 어야 으니 으면 고 지 덕니 ⋮
맡(受)	
잊(忘)	
좃(從)	
얕(淺)	
값(報)	
좋(好)	
⋮	⋮

(1) 語幹은 언제나 一定한 綴形을 가졌으므로 語形을 보고 곧 語意를 把握할수 있다.

(2) 同一한 職能을 表示하는 活用部는 同一한 形式으로 統一되어 어떠한 바침 밑에서든지 普遍的으로 쓰인다.

(3) 極히 少數되는 變格用言을 除하면 上述한 바와 같이 一目瞭然한 規則 아래 모두 統一된다.

以上과 같은 理由로써 우리는 새 바침의 必要를 느끼고 또 主張하는 바이다. 그런데 朝鮮語의 綴字法改訂運動이 시작된지 거의 三十年(光武九年七月에 舊韓國學部로서 新訂國文 實施件을 公布한 때로부터 今年까지 二十九年)이 되었다. 그동안 幾多의 曲折을 지나 오늘날 可謂 括目할만한 進歩를 보게된 것은 누구나 慶賀치 않을수 없다. 그러나 이토써 우리 글은 完璧에 達하였다 할 수 없으며, 아직도 整理 途程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하여 우리 앞에는 새 바침 問題外에도 여러가지 問題가 놓여 있으나, 여기에서는 그것을 一一이 말할 餘裕가 없으므로 새 바침 中에서도 우선 「음」바침과 들바침의 當否에 對하여만 暫間 檢覈하여보려한다.

第二本論

一. 「ㅎ」바침을 主張함

나는 緒論中 「새 바침의 必要」란 題下에서 「ㅎ」바침을 바침 語例를 舉示하였고, 또 語幹과 活用部의 關係를 說明하는 中에 「ㅎ」바침을 主張하는 意味도 多少 包含시키었다. 그러나 「ㅎ」바침의 採用을 처음으로 唱道한 이는 近世 朝鮮語學 研究界의 開拓者인 故 周時經氏다. 卽 그의 著書 「國語文典音學」이란 冊 第五十六, 五十七페이지에 새 바침의 實例를 列舉한 끝에는

ㅎ終聲…… 쌓(積), 낱(産), 넣(入), 놓(置), 땡(編) (並 動字)
 좋(好) (形字)

ㄹ終聲…… 잃(失), 싫(不願, 厭) (並 動字)
 옴(可), 옴(非, 不可) (並 形字)

等이 있으며, 同書 第十九, 二十페이지에는

「ㄱ」은 「ㄱ」의 濁音이니, 「ㄱㅎ」나 「ㅎㄱ」의 混合한 音인데, 「ㄱ」左의 一畫은 「ㅎ」를 代表하여 加한 者요 云云

(例) 「각하」를 連發하면 「가카」와 同함。

「ㅎ」는 他 子音과 連하면 混合性이 有한 故로 加疊되지 않고 混合하나니, 是以로 「ㄱ」은 「ㅎㄱ」의 合音도 됨。

(例) 國語 習慣으로 흔히 「정ㅎ고」의 「、」를 빼고 줄여 「정코」라 하나니, 「정코」는 「정ㅎ고」의 「ㅎㄱ」이 合하여 「ㄱ」이 된 것. (以下 「ㄷ」, 「ㄱ」, 「ㄷ」에 對한 說明은 이에 準한 것이므로 略한다. —筆者)

이러 記載되어 있다. 周時經氏의 說明에 依하면 「ㅎ」은 다른 音과 混合하는 性質을 가졌다 하였다. 이것은 그 時代에 있어서는 참으로 氏의 卓見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ㅎ」의 音理에 對하여 좀 더 學理的으로, 좀 더 具體的으로 說明치 못한 것은 매우 遺憾으로 생각한다. 具體的 說明이 없었으므로 해서, 이 「ㅎ」바침을 主張하는 說은 적지않이 曖昧視되었다. 그리하여 三四年前에 總督府 當局에서 所謂 諺文綴字法을 改定할 때에도 많은 새 單終聲과 重終聲이 採用되었음에 不拘하고 「ㅎ」바침은 容認되지 못하였다. 그리 된 理由를 文字上으로 分明히 記錄한 것은 別로 볼 수 없으나, 그 當時의 委員들의 反對說을 綜合하여보면, 大概 다음과 같은 세가지가 있었다 생각한다.

(1) 「ㅎ」바침은 매우 理解하기 어렵다.

(2) 다른 國語에 「ㅎ」바침을 가진 例가 없다.

(3) 「ㅎ」가 ㄱ, ㄷ, ㄹ, ㅈ와 混合하면 果然 ㄱ, ㄷ, ㄹ, ㅈ가 되는지, 아직 더 研究하여볼 餘地가 있다.

以上の (1) 卽 難解란 것이 바침으로 容認못할 理由는 成立되지 않는다. 實際에 있어서는 「ㅎ」바침뿐 아니라, 새로 採用된 바침은 모두 從來 쓰던 바침보다 難解일 것이다. 이 難解란 負擔을 犧牲하고라도 새 바침을 採用하는데는 有利한 條件이 더 많은 것 緒論 「새 바침의 必要」에서 이미 說明한바)를 있어서는 안된다.

(2) 다른 國語에 類例가 없다는 것도 問題되지 않는다。그들이 云爲하는 다른 國語란 것은 대체 얼마나 많은 種類를 이룬지 알 수 없으나, 現時 우리들이 가진 外國語의 知識은 極히 少數에 局限되어 있다。即 日本語, 中國語, 英語, 佛語, 獨逸語, 좀더 나아가야 露西亞語, 羅甸語, 希臘語等의 範圍를 벗어나지 못한다 보아 過言이 아니라 생각한다。이 國語들은 그 大部分이 朝鮮語와는 根本적으로 그 種類, 性質, 組織이 다른 國語들이다。朝鮮語가 우랄알타이語族(Ural-Altai Family)에 붙었다는 것은 거의 定說이 되어 있으니, 이 方面의 言語를 좀더 널리 研究하여보면 意外에 「ㅎ」바침이 있는 國語를 發見하게 될지도 알 수 없다。그리고 百步를 讓하여 이 世界에 그와 같은 言語가 다시 없다 할지라도, 朝鮮語에 있어서는 音理上 語法上 이 바침을 採用하여야 가장 合理的으로 說明되며 또 理解될 것이므로, 他國語에 類例의 有無로 因하여 「ㅎ」바침의 採擇 與否를 決할 아무 理由도 없는 것이다。그것이 도리어 朝鮮語의 特質이라 할 것이다。

(3) 우에 말 한바 「ㅎ」이 「ㄱ, ㄷ, ㄹ, ㅂ」과 混合하면 과연 「ㅋ, ㆁ, ㆁ, ㆁ」이 되는가 합은 結局 音理問題이므로 다음에 條項을 나누어 比較的 詳細히 說明하여 보려한다。

(1) 音理上으로

(ㅎ)이 「ㄱ, ㄷ, ㄹ, ㅂ」等의 子音과 合하여 「ㅋ, ㆁ, ㆁ, ㆁ」等이 成立됨을 證明하려면 우선 「ㅎ」音의 本質부터 밝히는것이 順序上 當然한 일일가 한다。

(가) 「ㅎ」音의 本質

「ㅎ」은 日本語의 「ハ」行 音에서 母音 アイウエオ를 빼고 남은 子音과, 또 西歐 諸國語 中の 發音되는 「h」와 마찬가지로 喉頭摩擦音이니, 氣流가 狹窄된 聲門(註1)을 通過할 때에 發하는 無聲(註2)摩擦音이다。다시말하면 聲帶와 聲帶를 適當한 距離에 接近시키어 聲門을 좁게하고 그 사이로 氣流를 通過시키되 聲帶의 振動을 일으키지 않고 다만 摩擦만을 생기게 할 때에 發하는 音이니, 만일 聲門을 좁히는 程度를 極히 甚하게 하든지 아주 막아버리고 軟骨聲門으로만 氣流를 流出시킬 때에는 우리가 언 손을 입김으로 호호 불어 녹일 때에 나는 소리와 같은 所謂 Whisper Flusterny (쌩쌩음)가 되어버리고, 또 만일 聲門 사이를 充分히 열어놓고 別障礙 없이 氣流를 流出시키다가 ㅁ 母音을 發音할 準備를 하면, 이때에도 一種의 「h」와 類似한 (註3)音을 發할 수 있나니, 이것은 無聲母音이라고도 볼 수 있는 音이다。英語의 Honest, Honour等의 頭音되는 「h」와 佛語의 默音(Silence)되는 「h」와 같은 것은 다 이 種類의 音이다。그러므로 「ㅎ」은 Whisper도 아니요 無聲母音도 아닌, 말하자면 그 中間音쯤 되는 子音이다。그리고 「ㅎ」은 喉頭 摩擦音이므로 調聲部 即 咽頭, 口腔, 鼻腔의 作用으로 因하여 發하는 音이 아니요, 그 音의 發源이 喉頭에서 成立되어 別로 調聲部의 諸機關의 障礙를 받는 일이 없이 比較的 自由롭게 流出되는 音이다。이와 같은 性質로 보아서는 母音과 매우 近似하나, 그러나 母音은 반드시 聲帶의 振動을 要함을 必要條件으로 한다。聲帶의 振動을 要하느냐 아니하느냐 하는 것이 母音과 「ㅎ」音과를 區別하는 重要한 條件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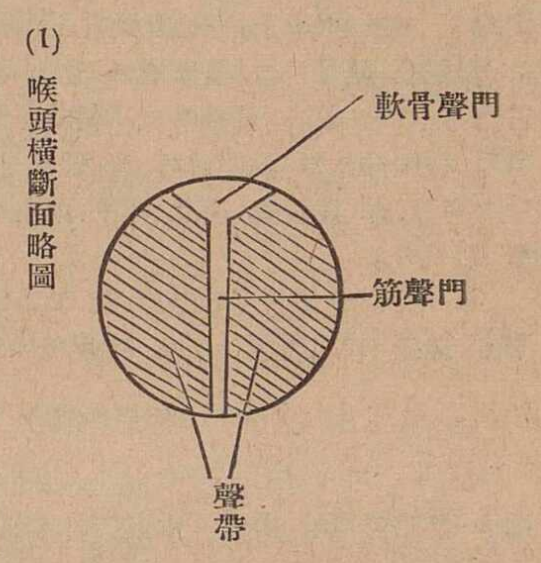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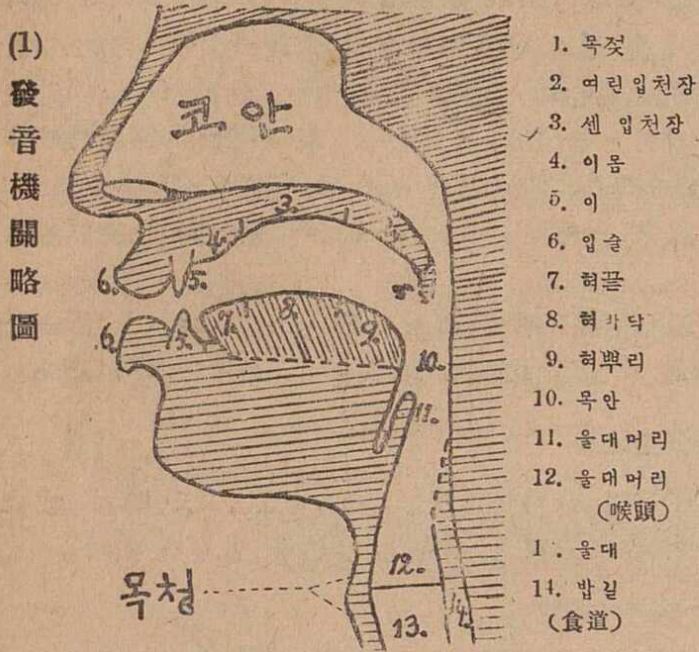
以上の 說明을 要約하면 「ㅎ」은

A) 子音이다。

(B) 摩擦音이다。

(C) 喉頭에서 發音되는 音이다。

等의 세가지 條件을 具備하게 된다。이 세가지가 「ㄱ」音의 本質을 規定하는 基礎條件이 된다。이와 같이 「ㄱ」은 다른 모든 子音이 發音되는 調聲部의 範圍를 벗어나서 喉頭에서 發音되는 唯一한 子音인 故로 다른 모든 子音이 갖지 않은 特質을 가졌다。



(註1) 두개의 聲帶 사이의 距離를 聲門이라 이르나니, 이 聲門을 다시 두가지로 細分하여 兩側의 聲帶筋 사이를 筋聲門(或은 眞聲門)이라 이르고, 破裂軟骨 사이를 軟骨聲門(或은 氣聲門)이라 이른다。그리고 普通 境遇에 聲門이라 함은 筋聲門을 意味하는 것이다。

(註2) 音에는 有聲, 無聲의 두가지 區別이 있나니, 氣流가 緊張된 聲門을 通過하여 나올 때에 聲帶의 振動을 일으키어 一種의 樂音을 發할 때는 그 소리를 聲音學上 有聲音이라 이르고 聲帶의 振動을 일으키지 않는 소리는 無聲音이라 이른다。

(註3) 母音은 반드시 有聲音이다。그런데 母音을 發하려하는 直前に 聲帶의 振動을 일으키지 않고 나서는 一種의 無聲音을 無聲母音이라 看做한 것이다。

(나) 「ㄱ」音과 他子音과의 關係

「ㄱ」은 上述한 바와 같이 喉頭摩擦音이므로, 喉頭에서만 發音되는 音이요, 다른 發音機關의 作用을 要치 않는다。여기서 다른 發音機關이라 함은 調聲部를 이룸이니, 調聲部는 咽頭, 口腔, 鼻腔의 세 部分으로 成立되었다。그리고 調聲部中에 가장 重要한 部分은 口腔이니 그中에는 唇, 齒, 齒槽突起, 口蓋, 懸壅垂, 舌等의 諸機關이 있어서 여러가지 音을 發하는데 重要한 作用을 行한다。이와 같은 作用을 生理的으로 觀察하여 보면 같은 調聲部 안에서는 두가지 作用이 同時에 並行될 수 없다。卽 同一한 口腔內에서 「ㄷ」音을 發하는 兩唇의 破裂作用과, 「ㄴ」音을 發하는 舌端과 齒槽突起 사이의 摩擦作用은 아무리 하여도 같은 瞬間에 成立되지 못한다。이것은 同時에 一身兩役을 못 하는 것과도 같고, 또 物理的 不可入性과도 같은 現象이다。반드시 次序的으로 時間을 달리 하여야 그 作用이 나타나게 된다。卽 「ㄷ」을 먼저 發할 때는 「ㄴ」은 그 다음에,

「ㄱ」發音의 作用을 먼저 行할 時는 「ㄴ」發音의 作用은 그 다음에 順次로 繼續的으로 行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그러나 一旦 發音機關을 달리할 때에는, 卽 同一한 口腔안의 機關이 아니요, 하나는 口腔內의 어느 機關과 다른 하나는 口腔外의 어느 機關, (이 틀리면 喉頭)과는 各各 그 作用을 同時에 行할 수 있다。그리하여 「ㄱ」音을 發하는 作用을 하는 同時에 聲帶를 振動시키는 作用을 行할 때는 有聲音 「g」이 되고, 「ㄴ」音을 發하는 作用, 卽 軟口蓋의 後部와 舌根 사이를 閉鎖하였다가 破裂시키는 同時에 聲帶에 氣流를 摩擦시키며 流出시킬 때에는 氣音(或은 激音이라고도 하는 일)이 있다。卽 Aspirate) 「ㄴ」을 成立시키게 된다。卽

無聲音 + 聲帶의 振動 = 有聲音

平音 + 聲門의 摩擦 = 氣音

이와 같은 式이 成立된다 할 수 있으나, 그 加票(+)는 決코 次序的으로 疊加함을 意味함이 아니요 全然 混合溶融하여야 한가지 새 音을 產出함을 意味함이다。이 現象은 音理上으로, 生理的으로 充分히 說明되어 조금도 支障이 없다고 믿는 바이다。不可入性의 鐵片이 儼然히 存在한 物理的 現象 아래 물에 食鹽이나 砂糖이 어느 程度까지 그 容量을 增加시키지 않고 溶解되는 것과 正히 同一한 現象일 것이다。이때에 喉頭와, 口腔內의 모든 機關 사이의 生理的 關係는 同一한 口腔內의 諸機關의 相互間과 같이 그다지 密接하지 아니하여 各自가 서로 妨害됨이 없이 自由로운 作用을 充分히 行할 수 있기 때문이다。以上과 같은 根據로써 나는 다음과 같은 斷案을 내릴 수 있다 하노니 卽

【「ㄱ」은 喉頭音 以外의 모든 子音과 混合하는 性質이 있다。】

하는 것이다。다른 子音과 混合하는 性質이 있다 함은 이 「ㄱ」音이 다른 子音과 合할 때에 兩者의 先後 關係가 없고 同時에 發音할 수 있다 함이다。

이와 같이 「ㄱ」은 모든 다른 子音과 混合할 수 있는 音이지 마는, 그 特徵을 더욱 顯著히 發揮하는 때는 破裂音과 合할 境遇다。破裂音 以外의 「ㄴ, ㄷ, ㄹ, ㄴ」等과도 混合할 수 있고, 實地로 「ㄱ」音과 合하여 發音할 수도 있지만, 그 境遇에는 氣流가 發音과 同時에, 或은 鼻腔을 通하여, 或은 發音部位의 空間을 通하여 항상 漏洩하게 되므로 「ㄱ」音의 特徵, 卽 流出되는 氣流의 喉頭摩擦作用이 破裂音과의 境遇에 比하여 그다지 發現되지 않는 것이다。그러므로 우리 말에 있어서 「ㄱ」音이 가장 問題되는 것은 破裂音과 混合할 境遇다。

(다) 特別히 破裂音과의 關係

「ㄱ」이 破裂音 「ㄴ, ㄷ, ㄹ, ㄴ」等과 混合하여 發音될 境遇, 卽 破裂音과 同時에 發音될 境遇에 그 特徵(Aspirate現象)을 一層 顯著히 發揮하는 理由는 「ㄴ, ㄷ, ㄹ, ㄴ」等音이 破裂되기 前의 閉鎖作用에 因하여, 「ㄱ」을 發音시키려는 氣流가 一時 積滯되었다가, 그 破裂과 同時에 強度의 摩擦을 起하는 까닭이다。그리고 前述함과 같이 「ㄱ」은 다른 子音과 先後 關係 없이 混合하는 性質을 가졌으므로 다음과 같은 聲音理論이 成立된다。

ㄱ×ㄱ=ㄴ 卽 { ㄱ+ㄱ=ㄴ.....각하)閣下)→기카
 (ㄱ+ㄱ=ㄴ.....중고→조코, 많고→만코

$\text{ㄷ} \times \text{ㅎ} = \text{ㄸ}$ 即 $\left\{ \begin{array}{l} \text{ㄷ} + \text{ㅎ} = \text{ㄸ} \dots\dots \text{만형} \rightarrow \text{마형}, \text{만하라 버지} \rightarrow \text{마다라 버지} \\ \text{ㅎ} + \text{ㄷ} = \text{ㄸ} \dots\dots \text{종다} \rightarrow \text{조다}, \text{많다} \rightarrow \text{만다} \end{array} \right.$
 $\text{ㅂ} \times \text{ㅎ} = \text{ㅃ}$ 即 $\left\{ \begin{array}{l} \text{ㅂ} + \text{ㅎ} = \text{ㅃ} \dots\dots \text{입학(入學)} \rightarrow \text{이팍}, \text{밥치고} \rightarrow \text{바피고} \\ \text{ㅎ} + \text{ㅂ} = \text{ㅃ} \dots\dots \text{승병아리} \rightarrow \text{수평아리}, \text{망바림} \rightarrow \text{마파림} \end{array} \right.$
 $\text{ㅅ} \times \text{ㅎ} = \text{ㅆ}$ 即 $\left\{ \begin{array}{l} \text{ㅅ} + \text{ㅎ} = \text{ㅆ} \dots\dots \text{맞춘다} \rightarrow \text{마춘다}, \text{잊히다} \rightarrow \text{이치다} \\ \text{ㅎ} + \text{ㅅ} = \text{ㅆ} \dots\dots \text{종지} \rightarrow \text{조치}, \text{많지} \rightarrow \text{만치} \end{array} \right.$

以上の理論을 具體的으로 實驗할 수 있으니, 音波의 振動하는 狀態를 線으로 表示하는 裝置를 가진 Kymography라는 機械에 依하여 「ㅎ」音과 「ㄱ」音을 發音할 때에 그려어진 線을 綜合하여 「ㅋ」音을 發音할 때에 그려어진 線과 比較하여 보면 容易히 判斷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Kymography는 高價인 機械이므로 누구나 손쉽게 實驗하여 볼 수는 없다. 여기 가장 簡便하게 이 聲音現象을 實驗할 수 있는 方法이 있으니, 코푸는 종지와 같은 얇은 紙片을 손으로 들어 입앞에 느리고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자」諸行의 音을 發音하여 보면, 그 紙片은 靜止하여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極히 輕微한 運動을 할 뿐일 것이다. 우리가 매우 단단한 音이라 생각하는 「까, 따, 빠, 짜, 싸」諸行의 音을 同樣으로 實驗하여 보아도 紙片은 그다지 顯著한 運動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行音을 發音하여 實驗하여 보면, 이번에는 紙片이 입김에 불리어 顯著히 날리게 된다. 이것은 「ㅎ」를 發音할 때에 喉頭를 摩擦하고 流出되는 氣流가 相當히 강한 勢力으로 나오는 까닭이다. 다시 한번 「차, 카, 라, 파」行의 音에 對하여 同樣의 實驗을 行할 때에는 「하」行音에 對하여 行할 때와 同一한, 或은 그 以上の 結果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는 「ㄷ, ㅈ, ㄸ, ㅉ」中에 「ㅎ」音의 分子가 들어 있어 亦是 喉頭를 摩擦하는 氣流가 強하게 흘러 나오는 事實을 證明하는 것이다. 以上の 論述로써 「ㄷ, ㅈ, ㄸ, ㅉ」속에는 「ㅎ」音이 包含되어 있고, 그 逆으로 「ㅎ」가 「ㅅ, ㅈ, ㄸ, ㅉ」와 混合하여 「ㅆ, ㅊ, ㅌ, ㅍ」音을 成立시킨다는 事實은 疑心할 餘地 없이 解明되었으리라 믿는다.

그리하여 前揭한 表의 ㄱ×ㅎ=ㅋ等은 理論과 實際의 두 方面으로 充分히 證明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論證을 더욱 確固하게 하기 爲하여 外國人이 그들의 文字로써 朝鮮語音을 表記한 方式을 보면

	ㄱ	ㄷ	ㅂ	ㅅ	ㅋ	ㅌ	ㅍ	ㅊ
Aston氏	k	t	p	ch	kh	th	ph	chh
Medhurst氏	k	t	p	ts	k'h	t'h	p'h	t'sh
Scott氏	k	t	p	ch	k'	t'	p'	ch'
Eckardt氏	k	t	p	tj	kh	th	ph	tch

此外에 萬國 聲音學會를 代表하여 D. Jones氏가 編纂한 「各種 言語에 對한 聲音符號와 그 應用」(Lautzeichen und ihre Anwendung in verschiedenen Sprachgebieten Berlin 1923.)이란 冊에는 「朝鮮語에 對한 境遇와 같이 강한 氣音을 表示할 必要가 있는 때는 ph, th等과 같이 쓴다.」라는 意味의 말이 적혀 있다.

以上の 表記法을 보면 그 大部가 「ㅋ, ㅌ, ㅍ, ㅊ」中의 氣音(Aspirate)分子를 「h」로써 表示하였다. 그런데 그 「h」는 勿論 朝鮮語의 「ㅎ」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ㅋ, ㅌ,

교, ㅌ]中에는 「ㅎ」음이 包含되었다는 한 傍證이 된다。그러나 여기에 問題되는 것은 「ㅋ, ㄷ, ㅌ, ㅍ」음을 表記한 kh, th, ph 등의 h는 모두 k, t, p等音의 後部に 添加되어 있으니, ㄱ+ㅎ=ㅋ, ㄷ+ㅎ=ㄷ.....는 成立될 수 있으나, ㅎ+ㄱ=ㅋ, ㅎ+ㄷ=ㄷ.....는 成立될 수 없다고 强辯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나, 그는 그렇지 아니하다。「h」를 k, t, p等의 後部に 添記한 것은 氣音을 表示하는 一方法으로 k, t, p等과 같이 表를 附하는 慣例에 依하여 「h」를 後部に 添記하였을 뿐이오 決코 音의 先後 觀念을 表示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그 證據로는 佛國 宣敎會에서 編纂한 韓佛字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Consonnes. (子音)								
ㄱ	ㅁ	ㄴ	ㅂ	ㄷ	ㅅ	ㅈ	ㅊ	ㅇ
K	M	N	P	R	S	T	TJ	NG
		ㅎ	ㅋ	ㅌ	ㄷ	ㅍ		
		H	HK	HP	HT	TCH		

이와 같이 「H」를 K, P, T等의 前部に 添記한 것을 보아 그와 같은 强辯은 抑斷이라 생각한다。

이 外에 平北, 全南 地方의 方言에 「입학」(入學), 「각하」(閣下) 등의 發音이 京城地方의 語音과 같이 分明히 「이팍」, 「가카」로 되지 않는 것을 들어 이 理論을 反駁하는 자가 있다。그러나 그 地方의 發音을 仔細히 注意하여 들어보면

(A) 「입학」, 「각하」라고 發音할 때에 「입」音과 「학」音, 「각」音과 「하」音 사이에는 相當한 동안(Duration)을 두어 發音하므로 「입」音의 「ㅂ」과 「학」音의 「ㅎ」가 完全히 充分히 混合되지 못하는 일

(B) 前記 地方의 發音에는 「ㅎ」음이 大體로 弱하여 氣流의 喉頭摩擦이 다른 地方 發音과 같이 充分치 못하므로 「각하」는 「가카」와 같이, 「입학」은 「이팍」과 같이 들리는 일

의 두가지 特殊한 現象이 있다。이러한 特殊現象으로써 到底히 그 論據를 顛覆시킬 수는 없다 생각한다。

(라) 略音의 關係

現代 朝鮮語의 「ㅎ」바침을 가진 말은 두가지 種類가 있으니,

(A) 單終聲으로 「ㅎ」바침을 가진말,

例. 動詞——낳다(産), 놓다(放), 쌓다(積)等

形容詞——좋다(好), 하얗다(白), 그렇다(然)等

(B) 重終聲中에 「ㅎ」바침을 가진말,

例. 動詞——끊다(斷), 앓다(不), 쫓다(考査), 잃다(失), 앓다(病), 끓다(湯)等

形容詞——많다(多), 언짢다(不好), 펜찮다(無關), 앓다(非), 옳다(可), 싫다(厭)等

以上の 諸語를 다시 그 바침의 生成過程上으로 區別하여보면 또한 두가지가 있다。

(1) 「ㅎ」가 完全히 바침으로 굳어버린 말,

例. 單終聲——좋다, 놓다, 쌓다等

重終聲——끓다, 끓다, 많다, 읊다, 싫다等

(2) 名詞 或은 名詞形語源에 「ㅎ」가 붙어어서 用言으로 쓰이다가 그 「ㅎ」의 「ㅇ」가 줄어들어서 「ㅇ」바침이 生成하는 途中에 잇는말,

例. 單終聲——그러하다→그렇다,
이러하고→이렇게,
저러하지→저렇게,
可하다→좋다,

重終聲——아니하다→아닐다→않다,
귀치아니하고→귀치않고→귀찮고→귀찮고,
접지아니하지→접지않지→접잖지→접잖지,
관치아니하다→관치않다→관찮다→관찮다,
精하지→정궁지, 決하고→결궁고,

이中的 (2)에 隸屬되는 모든 말, 卽 語尾에 「ㅎ」를 가진 말로서 그 「ㅎ」의 「ㅇ」가 줄어들고 「ㅇ」바침을 갖게 되는 途中에 잇는 말들이야말로 ㅎ+ㄱ=ㄱ, ㅎ+ㄷ=ㄷ...等의 立論을 成立시키는데 重要的 證據材料가 된다. 卽 「ㅎ」음이 먼저 오고 「ㄱ, ㄷ, ㅂ, ㅈ」음이 나중에 와서 混合할 境遇에도 「ㄱ, ㄷ, ㅂ, ㅈ」等 音을 成立시킬 수 있다는 理論을 事實으로써 立證하는 것이다. 「ㅎ」음에 그와 같은 性質이 없다 하면 結果로서 「ㄱ, ㄷ, ㅂ, ㅈ」等의 發音이 생길 수는 決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ㅇ」음이 脫落되는 것은 「ㅎ」의 境遇만이 아니다. 古語와 現代語를 比較 해야보면 그와 같은 例는 얼마든지 指摘할 수 있다. 卽

(現代語)

(古語)

꺽마(鞍)

기꺽마(龍飛御天歌, 杜詩諺解, 訓蒙字會)

되오(爲)

되오(杜詩, 佛頂心陀羅尼經)

훑이로다(單이로다)

훑오치로다(杜詩)

너르신다(謂하신다)

너르시는다(〃〃)

운다(啼하다)

우는다(〃〃)

고이, 피(裳, 裙)

마외(〃〃)

等이 그것이다. 다만 「ㅎ」의 境遇와 다른 點은 母音 「ㅇ」로부터 遊離된 「ㄷ, ㄴ, ㄱ, ㄷ」等의 子音은 「ㅎ」와 같이 다른 子音과 섞일수 없는 性質을 가졌으므로 웃 音節의 바침으로 올러물게 되거나 그렇지 않고 바로 그다음 音節에 初聲이 없을 境遇에는 그 初聲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 뿐이다.

以上으로써 「ㅎ」音의 本質과, 또 다른 子音과의 關係를 대강 闡明시킨 셈이다. 그러 해야 音理上으로 「ㅎ」가 바침될 充分한 可能性이 있다는 것도 證明되었다 생각한다.

(2) 語法上으로

이와 같이 「ㅎ」바침의 主張을 高調하는 所以는 結局 音理에 基本하여 文法上 統一을 期하며 함에 있다. 言語를 整理함에는 文法上 同一한 關係를 表示하는 境遇에 普遍的 되는 一貫한 法則이 세워져야 하고, 또 同一한 關係는 모다 同一한 法則에 統一됨을 要求하는 바를 緒論에서 이미 屢屢히 論述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그 理論에 關

하야는 重複을 避키 爲하야 玆 말하지 않고 尙 「古」바침을 가진 말의 活用形을 보이며, 아울러 「古」바침을 쓰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理由를 좀더 敷演하야 말하러 한다。(古語에는 體言에도 「古」바침을 가졌든 形跡이 보이나 現代語에는 그와 같은 말이 없으므로 用言에 對하야만 말한다。)

(語幹)	(活用部)
먹(食)	어서, 어야, 어라.....
받(受)	아서, 아야, 아라.....
깊(深)	으니, 으면.....
낱(産)	을지라도, 을러이면, 읍니다.....
넣(入)	거든, 게, 고, 기.....
놓(放)	다가, 덕니, 데, 도다, 드라.....
좋(好)	자, 지.....
쌓(積)	네, 노라, 느냐.....
말(辯)	세, 소.....

以上の 活用表를 보면 「古」바침을 가진 말도 다른 바침을 가진 말과 同一한 形式으로 統一된다。但 括弧안에 들어 있는 「아서, 아야.....」 등은 「아, 오」 등의 陽性母音 밑에 使用될뿐이오 그 職能은 「어서, 어야.....」 등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그리고 「古」바침을 가진 말 아래 「나」行音 「네, 노라, 느냐」 등과 「사」行音 「세, 소」 등이 될 때에 發音上에 생기는 變化는 이 아래 反對說을 批判할 때에 詳細히 說明하러 하고 여기서는 略한다)

지금 만일 「古」바침을 容認치 않고 總督府案대로 活用形을 表示하여보면

	活 用 部		
(語幹)	共 通 的	非 共 通 的	共 通 되 나 性 質 이 다 른
먹(食)	어서, 으면,	고, 다, 지,	네, 소.....
받(受)	〃 〃 〃 〃	〃 〃 〃	〃 〃
깊(深)	〃 〃 〃 〃	〃 〃 〃	〃 〃
나, 낱(産)	〃 〃 〃 〃	코, 락, 치,	〃 〃
너, 녀(入)	〃 〃 〃 〃	〃 〃 〃	〃 〃
노, 놓(放)	〃 〃 〃 〃	〃 〃 〃	〃 〃
조, 좃(好)	〃 〃 〃 〃	〃 〃 〃	〃 〃
싸, 쌓(積)	〃 〃 〃 〃	〃 〃 〃	〃 〃
마, 맞(編)	〃 〃 〃 〃	〃 〃 〃	〃 〃

當然히 「古」바침을 바쳐야할 것을 容認치 아니하야 「가, 다,」 자行音의 活用部는 各各 「커든, 케, 코, 키.....」, 「라가, 러니, 로다, 드라.....」 「차, 치.....」 등으로 變하야 다른 바침 밑에 오는 活用部外 統一이 없어지고, 또 「나」行音 活用部 「네, 노라, 느냐...」와 「사」行音 活用部 「세, 소.....」 우에서는 語幹에 「入」바침을 붙이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그리하야 活用部가 不統一될뿐 아니라, 語幹도 두가지 形式을 備플게 되어 一定치 못하다。即 音理上 조금도 不合理가 없는 「古」바침을 採擇하지 아니하므로 因하야

二重의 不統一, 無條理를 招來케 된다。文法整理上 見地로 보아도 「ㅎ」바침 採用이 그 얼마나 必要한가를 깨달을 것이다。

(3) 歷史的 根據로

(가) 訓民正音의 趣旨

訓民正音의 바침 規定에 對하여야는 緒論에서 이미 暫間 말하였거니와, 「終聲復用初聲」이란 말에는 「ㅎ」初聲은 終聲될 수 없다는 아무 制限도 包含되어 있지 않다。必要에 據아서 바침에 初聲 글자를 가져다 쓰라 하든 汎博한 規定이니, 오늘날 우리가 「ㅎ」바침의 必要를 切實히 느끼고 音理上으로도 아무 不合理한 點을 찾을 수 없는 以上 「ㅎ」바침 採用을 조금도 踟躕할 餘地가 없다 訓蒙字會의 規定을 깨트리고 「ㄱ, ㄴ, ㄷ, ㅌ」等의 바침을 認定하는 以上 그와 同様の 必要를 感하는 「ㅎ」도 斷然 바침으로 採擇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나) 古書의 記寫例

訓民正音, 龍飛御天歌, 月印千江曲等의 古書에 「ㅎ」바침을 明記한 實例가 없다는 것을 理由로 삼아 「ㅎ」를 採用할 수 없다면, 그는 「ㅎ」에만 限할 問題가 아니다。「ㄷ」바침과 같은 것도 나는 아직 古書에서 찾아볼 機會를 갖지 못하였다。누구나 아다지와 古書의 表記法은 바침을 내려쓰는 것이 原則이오, 體言이나 語幹에 붙여 쓰는 일은 도리어 例外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 古記寫例는 그다지 有力한 理由가 될수 없다。卽

머저서, 머저야, 머그니, 머그면, 머글

바비, 바블, 바븐, 바베

와 같이 表記하다가도

먹고, 먹게, 먹다가, 먹지, 먹는

밥도, 밥파, 밥그릇

과 같은 境遇에는 할 수 없이 바침을 올려 붙여서 記錄하였다。이 境遇는 同一한 글자 「ㄱ」과 「ㄷ」이 올라가느냐 내려오느냐 하는 問題에 지나지 않치마는, 밭(田), 돌(豚)과 같은 말에 對하여야는

바티, 바틀, 바튼, 바티.....(杜詩諺解等)

도티, 도틀, 도튼, 도티.....(// // 龍飛御天歌)

이라 하여 「ㄷ」바침을 내려쓰다가도

三田渡=삼밭개(龍歌), 竹田=대밭(全書), 田=밭던(訓蒙字會)

猪灘=돈여흘 (// //), 猪=돈데, 龜=틀데(訓蒙字會)

과 같이 올려쓸 때에는 「ㄷ」바침이 되고 말았다。

또 말(任)이란 말은

任함을=맛도물(杜詩), 任=맛들심(訓蒙字會)

이라 하여 「맛」이 語幹 같이 되다가도

맛고, 맛지

等과 같이 써서 바침의 一部라 볼 수 있는 「ㄷ」는 全然 빠져버리었다。前者는 「ㄷ」中의 「ㅎ」음을, 後者는 「ㄷ」음을 脫落시키고 記寫하였다。이와 같은 狀態이므로 古書의

表記法이 반드시 變通할 수 없는 準則될 수는 없다。

그리고 古記錄의 記寫實例를 좀더 仔細히 살펴 보면 오히려 「ㅎ」바침이 있었던 形跡을 볼 수 있으니

地=싸히, 싸힐, 싸햇, 싸과

上=우흔, 우힐, 우희, 우과

等=들히, 들힐, 들희, 들과

川=내히, 내힐, — 내과

등의 「ㅎ」는 다 體言의 바침인 것을 곳 알게 된다. 더욱이 「싸과」, 「우과」, 「내과」 등의 「과」는 接續詞 「과」와 全然 同一한 것이요, 朝鮮語 音韻法則에 依하여 보면 바침 있는 말 아래에는 「과」가 붙고 바침 없는 말 밑에는 「와」가 붙는 規則이 잇은즉, 「ㅎ」가 「싸, 우, 내」의 바침이 아니라 하면 이 말들 밑에는 當然히 「싸와」, 「우와」, 「내와」와 같이 「와」가 쓰이어야 할 것이다. 바침 있는 말 아래 쓰이는 「과」系統의 「과」가 쓰인 것을 보면 「과」中の 「ㅎ」만은 分明히 웃 밑의 바침일 것은 喋喋을 要치 않는 自明한 事實이라 믿는다. 古書를 들추어보면 이와 같은 말은 대단히 많으며 다른 모든 바침을 내려 쓴 것과 同一한 筆法으로 記寫한데 지나지 않는다. 여기 對하여는 日本人 前間恭作氏도 以上과 同一한 意見을 그의 著書 韓語通(P. 37. 38)과 龍歌故語箋(P. 13)에 말한 것이 있다.

또 한가지 古文獻의 表記例에 注目할만한 것이 있으니, 「ㅎ」와 마찬가지로 喉音系統에 屬하는 「ㅇ」, 「ㅎ」 등이 終聲으로 쓰인 實例를 볼 수 있음이다.

虛형, 之정, 오십제, 드르십게

이로 미루어 보아도 「ㅎ」終聲의 可能性은 充分히 있다고 생각한다.

(다) 諺文志의 見解

諺文志는 純祖 때의 學者 柳愔가 지은 冊이니, 終聲例를 說明한 곳에

苟推匣母之初聲, 終聲之ㅎ, 可以讀得矣

라고 말하고, 바로 그 아래 割註하여

如分히하, 作항하, 可得항之終聲。

이라 하여 「ㅎ」終聲의 可能을 또한 力說하였다,

註. 匣母라함은 「ㅎ」初聲이 이름이다。

× × ×

以上으로써 나는 歷史的 根據에 對한 論證을 마치려 하거니와, 이것이 내가 「ㅎ」바침을 主張하는 理由의 全部거나 또는 그 核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決코 復古를 主張하는 것도 아니다. 言語는 恒常 變遷하여 마지 않는 것이므로 設使 歷史적으로 쓸 일이 없는 바침이라도 現代語에 있어서 充分한 理由와 音理的 妥當性이 있고 實用上 큰 不便이 없으면 언제든지, 어떠한 바침이든지 採用함을 踟躕치 말 것을 主張하는 同時에 「ㅎ」바침은 歷史적으로 살펴보아도 그 可能性을 充分히 暗示하였다는 것을 指摘하여 보일뿐이다.

二. 「ㅎ」바침 反對說의 批判

「ㅎ」바침 反對說을 이 우에서도 批判한 일이 잇거니와, 지금 다시 붓을 도리켜 좀더 具體的으로 그 主張을 解剖批判하야 보려 한다. 그런데 文字上에 나타난 反對論中 나 의 눈에 들어온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ㅎ」는 무엇인가? (現代評論 第一卷第八號—第二卷一號) 朴勝彬

(2) 甲. 喉音과 喉音 以外의音, (朝鮮語學講義要旨)

乙. 激音 (" " " ") 全人

(3) 「ㅎ」의 바침과 激音에 關한 見解 (東方評論 第一卷第一號) 全人

(4) 「ㅎ」는 終聲로 못함 (啓明 第二三號) 金振東

以上の 네가지 中 (1)(2)(3)은 그 內容이 거의 同一하고 (4)는 亦是 朴勝彬氏 說을 小 賣한대 지나지 못하며, 內容조차 너무 貧弱하다. 그러므로 나는 朴勝彬氏 說의 代表가 되는 朝鮮語學講義要旨 中에 所載된 것을 逐條的으로 吟味하야 보려 한다.

(1) 音理上으로 바침될 수 없음. (朝鮮語學講義要旨 P. 31)

所謂「音理」란 것에 對한 그의 說明은 너무 簡單하다. 「即 調音機關의 準備作用이 없음. 聲音을 放出하는 狀態로써 아야行音과 區別되는 音을 形成함이라」하였다. 그는 調音機關 以外에서 發音되는 音은 子音이 아닌줄 아는 모양이나, 「h」나 「ㅎ」를 어느 聲音學者든지 子母 아니로 본 사람은 없다. 또 그 音質(即 音價)에 對하야 「ㅎ」音의 本質이란 條下에 길게 說明하였으므로 이에는 더 말하지 않고 音理上으로 바침될 可能性이 充分히 있다는 것만 말하야 둔다.

(2) 더구나 餘音不發의 法則이 잇는 朝鮮語에서는 「ㅎ」바침은 想像도 되지 못함. (全書 P. 31)

餘音不發이라 함은 너무도 音理에 어둔 妄論이다. 나는 朝鮮語 바침의 真正한 原理를 表解로써 簡單히 說明하려 한다.

(가) 單바침의 單獨發音될 境遇,

破裂音——→閉鎖音

平音	ㄱ	ㄱ (破裂되지않는)
	ㄷ	ㄷ (" " ")
	ㅂ	ㅂ (" " ")
	ㄸ	ㅅ (" " ") [젓과→질과]
銅音(激音)	ㅋ	ㄱ (" " ") [西녯도→西녯도]
	ㄲ	ㄷ (" " ") [말고링→말고랑]
	ㅌ	ㅂ (" " ") [높더→눔더]
	ㅍ	ㅍ (" " ") [꽃나무→핀나무]

摩擦音——→銷音

ㅅ	ㅅ (破裂되지않는) [벗지→벌스]
ㅎ	ㅅ (=ㄷ) [종소→죇소, 쌀세→씻세, 땅는다→닷는다]
빙(唇輕音)	ㅂ (破裂되지않는) (받지방, 받좁고)
△(半齒音)	ㅅ (=ㄷ) [지서서, 짓고]

舌齶音——→側音

ㄹ (=r)	ㄹ (=l)
鼻音	鼻音
ㄴ	ㄴ
ㄹ	ㄹ
ㅇ	ㅇ

鼻音を 除한 外에는 모두 以上과 같은 變化가 생긴다。卽 音의 變化가 決코 餘音不發이 아니다。餘音不發이란 그 語意부터가 頗 曖昧하다。그 語句를 빌어 말한다면 鼻音 같은 것은 餘音を 發하지 않는가, 어디 餘音不發의 大原則이 있는가。

(나) 單바침의 連接發音될 境遇

(가) 子音과 接續할 境遇

子音同化作用이 생기지 않는 限, 單獨發音될 境遇와 同一한 變化를 일으킨다。

但 「ㄱ」바침은 섞이기 容易한 音과 만나면 混合되어 버리고, 섞이기 不便한 音과 만나면 「ㄴ」바침으로 變한다。

(나) 母音과 接續할 境遇

(甲) 從屬的 母音과 接續할 境遇

이 境遇에는 原音價대로 發音된다。

- 例. 맞어라, 꽃으면, 젓이,
 부엌에, 東녘이,
 불어서, 말으니, 밭에,
 늪아서, 깊으면, 잎이,
 쫓아라, 좃으니, 꽃은,
 벗어도, 빗으면, 맛을,
 좋아서, 쌍으니,

(乙) 對立的 母音과 接續할 境遇

이 境遇는 單獨發音될 때와 같은 結果가 생긴다。

- 例. 젓어머니(乳母)——젓어머니
 부엌안(廚房內)——부엌안
 밭아래(田下)——밭아래
 무릎위(膝上)——무릎위
 꽃안(花內)——꽃안
 옷안(衣內)——옷안

以上이 대개 朝鮮語의 바침原理(末音規則, Law of Final)다。그런데 「ㄱ」바침이 單獨으로 發音될 때나 混合하기 不便한 다른 子音과 連接할 境遇에 「ㄴ」(ㄹ와 類似한 音價를 가진)音으로 變하는 理由를 說明하려 한다。「ㄱ」는 喉頭摩擦音이오, 朝鮮語의 바침法則으로는 摩擦音이 閉鎖音으로 變하는 性質이 있으므로, 「ㄱ」도 閉鎖音으로 變化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그러나 喉頭에서 閉鎖作用을 한다 하면 그 다음으로 繼續될 如何한 音도 發할 수 없게 되므로, 自然 位置를 變更하여 閉鎖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그런데 現在 朝鮮語에는 摩擦音이 「ㄴ」과 「ㄱ」을 들 밖에 없다。그러므로 「ㄱ」音이 閉鎖될 때에는 同種類의 音인 「ㄴ」의 位置에서 行하게 되는 것이다。이것은 音理上 그렇

게 되지 않으면 안될 自然의 趨勢다。

(3) 訓民正音의 趣旨을 考察하면 「ㅎ」는 終聲되지 못하는 音理가 敎示되어 있음。(全書 P. 32)

訓民正音의 文句解釋에 對하여 이미 말한바 있거니와, 氏의 말하는바 音理가 訓民正音 몇재폐지에 있는지 모르겠다. 만일 「ㅎ」바침 記寫實例가 없음을 根據로 삼아 그러한 말을 한다면 氏의 主張하는바 「ㄷ」바침은 果然 어떠한 實例에 依據함인지。

(4) 「ㅎ」바침을 主張하는 形式的言論도 스스로 矛盾됨이 있음。

(A) 訓民正音의 「終聲은 復用初聲하느니라」의 文句를 憑藉함云云

(甲) 그 文句의 文理解釋으로도 初聲은 되다 반드시 終聲으로 使用됨의 意味가 證明되지 아니함, 終聲은 初聲 以外의 다른 것으로 씀이 아니라는 意義가 나타났을 뿐이다。(全書 P. 33)

氏는 우리가 訓民正音의 文句를 잘못 解釋하고 그 初聲 글자들을 音理에 어그러지 드라도 全部 바침으로 쓰기 爲하여 「ㅎ」바침을 主張하는줄 아는 모양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無謀한 主張을 敢行할 勇氣는 갖지 못하였다. 音理에도 맞고 實際上 必要도 하니가 主張하는바이다。即 音理의 必然性과 文法整理上 큰 便益을 느끼기 때문이다。

(乙) 그 論者도 「ㅇ」의 바침을 否認하니 訓民正音 初聲은 다 바침으로 使用된다 함은 自家撞着이다。(全書 P. 33)

우리가 「ㅎ」바침을 主張한 動機가 初聲을 되다 바침으로 쓰려함에 있지 않으니, 아무 自家撞着도 없다. 그리고 「ㅇ」終聲을 否認 한대기로 그로 因하여 「ㅎ」가 바침 못될 理由가 那邊에 있는가. 또 우리는 「ㅇ」終聲을 否認하지도 않는다. 現代 朝鮮語에 있어서는 必要를 認치 않을뿐이다. 必要하다면 使用하는 것이 當然하다。

(B) 英語의 父音 母音에 關한 그 主論

「ㅎ」는 父音 子音이란 音味)이니가 바침이 될 것이라고 함, 그러나 英語에도 母音의 나음에 「h」간이 있으면 아무 音도 없음。(全書 P. 33)

그러나 歷史的으로 研究한 結果 現代 英語의 綴字中 默音은 다 어느 時代에는 發音되었음을 보이는 것이다. Hour, honour 등의 英語뿐 아니라, 佛語의 頭音 「h」도 다 發音되었든 것이라 한다. 現代語의 發音만을 보고 「h」末音의 無音을 主張함은 너무도 甚한 妄斷이다. 現代 發音으로만 볼지라도

Oh키o, Ah키A, hurrah키hurra

인 것은 英語를 좀 배운 사람이면 누구나 認識하는바이다. 그리고 獨逸語의 Auch, ach, hoch, noch, tag 등의 末音은 그 性質이 「ㅎ」와 極히 近似하여 喉頭 或은 그 가까운 位置에서 생기는 摩擦音으로 末音되었음은 儼然한 事實이다。

(5) W, Y는 音尾에 가면 바침이 아니 되고 母音으로 處理되어버림。(全書 P. 33)

W, Y는 喉頭摩擦音이 아니요 「ㅎ」와는 別個種類의 音이다. W가 母音으로 變하는 類例는 朝鮮語에도 있다。

빙——우, 語例. 서볼——서울

그리고 英語의 W는 古語에 있어서는 빙와 類似的한 完全한 子音이었던 것을 말하여

는다. 獨逸語에는 지금도 W음이 英語의 V음과 같다.

- (6) 二個의 各히 다른 發聲音이 두 中聲(母音을 가르침이다) 사이에 잇는 境遇에 그 發聲音(子音을 가르침이다)의 先後를 顛倒하여도 同一한 發音이 된다 함은 音理에 不尙함。(尙書 P. 65)

모든 子音의 順序를 倒置하여도 發音이 같다는 것은 아니다。「ㅎ」만은 다른 音과 混合하는 性質을 가졌으므로 此이다。물에 기름을 섞어보고 술을 섞어보면 이 理致는 容易히 解得할 수 잇을 것이다。물에 술 잔이란 무엇이 먼저 들어가는지 무엇이 나중 들어갔는지 到底히 알 수 없을 것이다。다만 混合된 結果만 어느 것이 먼저 들어가든지 똑 같을 것이다。

- (7) 「아기하」가 「아카」와 같은 發音이 되는 「아, (기ㅎ)+하」가 「아카」로 發音됨이 아니라 「아기+하」가 「아카」와 같은 發音으로 表現됨이라 尙書 P. 65-66)

그와 같은 發音으로 되는 根據가 어디 잇나.

- (8) 「호」가 略되고 激音이 生함을 「ㅎ」바침이라 함은 「으」가 略되고 硬音이 生함을 「ㅇ」바침이라고 함과 同一한 論法이라 左의 諸語를 對照하여 볼지어다。

흔호며, 흐기고, 흔코

심으며, 심고, 심췌 (尙書 P. 66)

氏는 「호」가 略되어 激音「氣音」이 생긴다 함에 對하여 音理上 또는 生理的 아무 說明이 없다。말하자면 주먹九九式이다。그리고 「으」가 略되면 어떠한 音理에 依하여 硬音(된소리)이 되는가。硬音調란 무엇이며, 그 成立되는 原理가 어떠한가。아무리 생각하여도 모를 일이다。여러한 聲音學 冊을 들쳐 보아도 그와 같은 音理와 說明은 찾을 수 없다。우선 氏가 例示한 말 가운데 矛盾이 發見된다。

심으며, 심으기, 심기, 심췌

가 잇는 反面에 「심기」(모심기하자等)란 말이 잇고,

신으며, 신으기, 신기, 신췌

가 잇는 反面에는 신기(신발 신진다)란 말이 잇으니, 이것은 어떻게 說明할 것인가。

(尙書 P. 35 參照)

- (9) 「ㅎ」는 온갖 發聲音의 바침의 다음에 添加되어서 바침이 된다 함은 音理上 容許되지 아니함。좃아서 다른 發聲音에 그 例가 없음。(尙書 P. 66)

「ㅎ」는 다른 子音보다 獨特한 性質(混合性)을 가진 特殊한 子音인 까닭이다。그리고 그와 같이 되는 그 大部分은 文語上 朗讀하는 말이오, 純會話語에 잇어서는 極히 좁은 範圍안에만 適用된다 卽 鼻音(ㄴ, ㄹ, ㅇ)과 流音(ㄷ) 바침 다음에서만 自由롭게 使用될 수 잇다。그 以外의 境遇에는 外來語(漢字語)와 純朝鮮語와의 交涉原理, 卽 同化過程에 잇음을 沒却하여서는 안된다。

- (10) 好「도호(호)며, 도코」의 語音과

可「가호(하)며, 가코」의 語音은 同一한 規例인데 「도호」의 單語를 「동」로하여 「동으며, 동고」로 解함은 不尙함。

朝鮮語의 하(卽 古語의 호)가 붙은 用言의 特殊性을 모름이다。이것도 外來語의 同化過程에 잇는 現象을 無視하므로 因하여 생긴 錯誤다。「可코」는 「可고」로 함이 當然하다。

풀이씨의 끝바꿈에 관한 論 (承前)

(用言의 活用論)

崔 鉉 培

第三. 異說批評——朴勝彬님의 段活用說를 駁함

一. 段活用說의 要旨

먼저 朴勝彬님의 段活用說을 그 著書에 依하여 紹介하면 이러하다.

(1). 語幹과 語尾.——用言의 끝 音節을 語尾이라고 이름. 語尾보다 위에 있는 音全部를 語幹이라고 이름.

例. 語幹 | 語尾

번적거	리 (閃)
기다	리 (待)
바	라 (望)
먹	그 (食)
	가 (去)

單音節인 用言에는 그 音節은 單語의 全體이며, 語尾로 되는 것임. 卽「가」(去)는 語幹은 없고 語尾로만 된 것이다.

(2). 語尾의 變動.——語尾에는 原段과 變動段이 있음. 原段은 用言의 原形(root)인 音이요, 變動段은 原段으로 부터 變動된 音임.

原段에는 原音과 略音이 있으니, 略音은 原音을 促急히 하는 慣習에 依하여 境遇에 따라서 略音으로 發한 것이다.

例.

	食	來	爲	成	是	
原段	原音	먹,	오,	하,	되,	이
	略音	익,				
變動段音	머거,	와,	하야,	되야,	이야	

(3). 語尾變動의 趣意.——音이 變動될 뿐이요, 意義에는 關係가 없음. 卽 段活用在란 것은 語意에는 아무 關係가 없고, 다만 소리가 變할 따름의 것이다.

以上은 朴님의 段活用說의 大旨의 全部이니, 그 著 朝鮮語學講義要旨 108頁에서 113頁까지에서 大概 말그대로 고어온 것이다.

二. 段活用の 無意義

사람의 말은 그 思想을 들어내는 것이요, 文法(말본)은 말의 법을 整理하여 밝히는 것인즉, 그 말본(文法)의 法則은 그 말의 表現하는 사람의 思想하고 무슨 關聯이 있어야 할 것은 많은 말을 할것 없이 明白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朴님의 段活用說은 思想과는 아무 關聯이 없고, 다만 소리의 變動을 論할 따름이다. (前揭書 111頁). 곧「머

本文法の活用은 決코 한낱의 末音(朴님의 語尾)만이 同一行에서 變化하는 것만은 아니다。가령 形容詞의 活用은

タカ	}	シ キ ク ケレ	ウツク	}	シ シキ シク シケレ
----	---	-------------------	-----	---	----------------------

와 같이 一 줄에서 혹은 한낱의 末音이, 혹은 두낱, 세낱의 末音이 變化하는 것이다。이는 日本文法の 用言의 活用이 音의 變化인 동시에, 뜻의 變化인 때문에, 한낱의 끝 소리가 한줄에서만 바꾸힌다는 形式的 法則에 拘碍될 수 없는 까닭이다。곧 語尾는 一音으로 된 것도 있지만, 二音, 三音으로 된 것도 있음을 認定한 것이다。

더구나 로마字가 日本에 使用되는 今일에 와서는 語尾 따라 活用の 說明方式이 進歩된 點이 있다。곧 「ユク」는 「ユカ, ユキ, ユク, ユケ」와 같이 語尾가 力行에서 活用한다는 것을 버리고, 語幹은 「Yuk」이 「a, i, u, e」로 活用한다고 풀게 되었다。이렇게 풀면 力行 四段活用, 力行 四段活用 따위의 名稱은 없게 되고, 모든 活用은 四段, 二段……으로만 되는 것이다。日本の 假名은 本是 音節文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力行活用 力行活用……로 풀지 않을 수 없었다가, 오늘날 字母文字인 로마字 ABC가 들어온 뒤로는 語法研究에 우에 말한 바와 같은 光明을 던져 준 것이다。그런데 우리 조선은 大聖 世宗大王께서 지어 기치신, 世界에서도 훌륭한, 字母文字 한글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엇이 괴로워서 저 日本文法の 舊態를 흉내낼 必要가 있으리오。

그러므로 朴님이 만약 日本文法の 舊式을 完全히 正當히 본뜻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贊成할 수 없겠거든, 하물며 이것이나마 誤解에 基因한 畫龍得蛇의 模倣에 不過합에라!

내가 위에서 朴님의 日本文法の 不正模倣을 말함은 單純한 臆測은 아니다。그는 일찍 六法全書를 지었은 적에 그 적는 법을 日本文記法과 같이 하자 하여

讀그니(읽으니)

食거(먹어)

와 같이 적은 일이 있었으며, 「啓明」에서도 이를 主唱한 일이 있었으며, 上記의 「朝鮮語學講義要旨」에서도 「먹그다」가 「먹다」로 되는 것을 다른 理論的 根據는 조금도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일본말에서 「ガクコウ」를 「각고」로 發音한다는 것을 引證하였음에 비취어 보아서, 그의 朝鮮語研究의 根本動力을 알 수 있다。따라 段活用說이 意識的이전 無意識的이전 日本文法の 模倣——잘못된 模倣임은 틀림없는 心理的 事實이다 하노라。나는 억없이 模倣 그것을 排斥하는 사람이 아니다。다만 不當한 模倣으로 해서 조선말 본의 大道를 : 릇잡은 것을 指摘할 따름이로다。

三. 原段(原段原音)을 잘못 잡았다

나는 위에서 「먹다」의 「먹」을 줄기(語幹)로 잡고 「먹으시다」의 「으시」는 도움줄기(補助語幹)로, 「먹으니」의 「으니」는 씨끝(語尾)으로 잡았다。

이에 對하여 朴님은 「먹그니」「먹그시다」의 「먹그」를 原段(우리의 「줄기」에 該當함)으로 잡고, 「먹다」의 「먹」은 原段原音의 略된 것, 卽 原段略音이라 하였다。

이것은 結局 바침아래 소리고루는 (Euphonic)구실을 하는 「으」를 그우의 씨줄기에

붙여 풀이할 것인가? 또는 달리 풀이할 것인가? 하는 問題로 되는 것이다.

나는 朴님의 原段을 批判하기 보다 차라리 一般의 見地에서 이 問題에 關한 모든 見解를 들어 批評하고자 하노라.

씨끝이나 도움줄기가 닿소리로 끝난 줄기 아래 쓰일 적에 그 머리에 얹게 되는, 소리고루는 「으」에 關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의 處理와 說明이 있을 수 있다. 곧

(1) 「으」를 獨立한 한낱의 도움줄기로 보는 법。

(2) 「으」를 그 우의 줄기의 한 조각(一部分)으로 보는 법。— 여기에는 또 두가지가 있나니, 이제 說明의 便利를 爲하여 보기로 「먹다」란 말을 가지고 말하건대,

(가) 「먹」을 줄기의 根本形으로 보는 법이니, 이 說의 近似한 代表者를 찾으면, 朴勝彬님이라 (그러나 朴님에 있어서는 아직 活用的 意義, 따라 語聲과 語尾의 文法的 意義가 相當히 서지 아니 하였은즉, 決코 이 見解의 正當한 代表者가 될 수는 없다)

(나) 「먹」을 줄기의 根本形으로 잡고, 「먹으니」의 「먹」을 그것의 늘어진 꼴로 보는 법이니, 이는 獨逸人 「엑카르트」님의 主張하는 것이다。(Eckardt, Koreanische Konversations-Grammatik. 1932)

(3) 「으」를 그 아래의 씨끝이나 도움줄기에다가 얹어서 하나로 보는 법. 이는 周時經 스승님이 主唱하시든 것이다.

위에 든 네가지의 풀이법은 各各 相當한 理由와 特長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맨끝의 법 곧 「으」를 한낱의 獨立한 도움줄기로 오지도 아니하고, 또 줄기의 한 조각으로도 보지 아니 하고, 다만 씨끝으로 도움줄기의 한 조각으로 보는 법을 取하노니, 그 까닭은 먼저 위에 든 여러가지의 見解를 批評함에서 저로 밝아질 것이다.

(1) 첫째 법의 長處는 「으」自體가 얼마큼 [遊離性]을 가져서, 들어가기도 하고, 없애지기도 하는 것인즉, 이것을 한 獨立한 도움줄기로 보면, 그 다룸질(取扱方)에 얼마큼 便利가 있다 할 만한 點이다. 그러나 元來 아무 實質的 뜻이 없는 소리에다가 한 獨立한 도움줄기의 資格을 許與함은 도움줄기의 原義에 어그러지는 것이다. 設令 도움줄기의 原義를 넓게 잡아서 이 따위까지를 그 가운데 包含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으」에 獨立한 도움줄기의 資格을 許與함은 너무 分析的 遊戲 같은 弊害를 免치 못할 것이다.

(2) 둘째 풀이법(곧 「먹」을 줄기의 으뜸줄로, 「먹」은 그 늘어진 꼴로 보는 법)의 첫째 것에는 다음과 같은 까닭이 있을 수 있다. (朴勝彬님은 이 主張을 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까닭, 곧 그 主張의 根據를 說明함은 直接으로나 間接으로나 도모지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에 이러한 根據를 말함은 마치 敵에게 武器를 提供하는 것 같은 危險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나는 眞正한 批判主義的 立場에서 그 批判을 徹底히 價値있게 하기 爲하여, 먼저 批判하고자 하는 學說에 可能한 根據를 힘껏 찾아 주어 놓고서, 다음에 이것을 嚴正히 批判하여, 그 妥當性의 있고 없음을 決定할 생각으로, 이를 發表하기를 決하였다. 그리하므로 이것이 이 說을 支持하는 사람에게 客觀的으로 有力한 武器는 못된 것이다.) 곧 우랄알타이 語族의 通性에 依하여 조선말에서도 받침소리는 나중에 생겨난 것이요, 그 처음은 다 呼소리(母音)로 끝지었든

것이다. 그렇든 것이 뒤에 차차 받침소리가 생겨난 것이다. 그러한즉 「머그」를 줄기의 으뜸꼴(根本形)로 보고, 「먹」은 그 줄어진 꼴로 봄이 옳다고.

그러나 과연 그러할가? 批判의 칼날을 여기에 던져 보자.

(7) 이 까닭은 꽤 재미스러운, 그럴듯한, 것이다. 오늘날 地方 사투리에서도 받침이 아직 完全히 굳어지지 못한 現象을 풀이시켜나(例. 같다—가르다, 깊다—기쁘다, 싹다—시끄�다...) 입자씨에서나(例. 咸鏡道の 「바부」(食), 慶尙道の 「사라무는」(사람은)의 따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全體를 規律할 수는 없나니, 假令 「부르러, 부르다, 부르고」 따위는 잘 쓰이면서 「머그다, 머그지, 머그고」와 「우르다, 우르지, 우르고」(泣) 따위는 왜 도모지 쓰이지 아니하는가? 이것을 完全히 說明할 수 없으며, 또 우리말의 語族的 關係도 完全히 闡明되지 못한 오늘날에 있어서, 그저 語族的 通性만을 가지고 想像的으로 說明方式을 決定함은 科學的 態度라 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設令 우리 조선말의 받침이 나중에 생겨난 것이 確實한 事實임을 너네이 考證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事實은 다만 歷史的 語源學的 事實일 따름이요, 決코 現在의 語法的 事實 그것은 아니다. 조선말론을 닦는이가 다만 그 標準을 그 想像에 不適當, 不定한, 어느, 古代에다가 들어서서 그 古代의 말론을 말한다면 모르겠지마는, 만약 그렇지 않고, 그 標準을 오늘날의 現實의 조선말에 두어서 오늘날의 조선말의 본(法)을 말한다면, 決코 그 考證되었다고 想定한 考古學的 事實 그대로에 따를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現代의 말에는 도모지 「없」(設令) 그 餘孽이라고 불만한 것이 地方的으로 혹 어떤 고비에 남아 있는듯 하더라도 그것이 決코 오늘날 표준 조선말은 될 수 없다. 오늘날의 조선말로서는 「머그다, 머그고, 머그지」가 「먹다, 먹고, 먹지」의 原形이라고 생각하는 實際 語感을 가진 사람은 二千三百萬 朝鮮사람 가운데 한 사람 밖에 또 있지 아니하다. 차님은 「머그다」를 열번만 連發하면 「먹다」가 된다 하지마는, 우리들의 생각에는 열번은커녕 百번을 連發하더라도 「먹다」로 안될 것이요, 設令 어찌하다 그리 된다 하더라도 이는 다만 發音上의 變性이 있음을 말한 것일뿐이요, 그것이 決코 實際로 그리한다는 事實을 指摘함은 되지 못한다. 事實에 있어서 「머그다」를 열번이고 다섯번이고 해보고 「먹다」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리오, 「머그다」는 決코 오늘날의 標準 語感이 될 수 없다. 그러한즉 標準語의 본을 다루는 말론에서 그것을 標準삼아 법세우지 못할 것이다.) 形式을 다만 그 假想된 古代語法을 가지고 規律하여 이를 實際化하려 힘과 같은 일이 있다면, 이는 도모지 철없는 작탄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ㄴ」 그러고 또 만약 풀이씨의 줄기를 이와 같이 想像的인 古法에 依하여 決한다면, 다른 이름씨(名詞)같은 것도 이와 같이 그 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끝날내(末音節)에 받침없는 이름씨 「배(梨), 대추(棗)」가 도와 맞아서 「배나, 대추나, 배로, 대추로」로 됴에 對하여, 그 끝날내에 받침있는 이름씨 「감(柿), 떡(餅)」은 그와 같은 뜻의 도와 맞아서, 「감이나, 떡이나, 감으로, 떡으로」로 되나니, 이러한 경우에서도 「가미, 떡기, 가르, 떡그」로써 이 이름씨의 으뜸꼴(基本形)로 잡고, 「감, 떡」은 그 줄어진 꼴로 잡아야 할 것인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무엇보다도 첫째 한가지의 이름씨가 그 으뜸꼴과 줄어진 꼴이 合하여 또박또박 셋씩(例. 柿가미, 떡기, 감 떡떡

기, 떡그떡)으로 될 것이니, 이것이 너무나 不合理한 臆說이라 아니할 수 없다. 語源學이 곧 現代의 文法學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七) 이러한 說明法은 歷史的으로 自然히 發達되어 온 朝鮮말의 語感과 記法에 違反된다.

訓民正音에서 한글이 처음으로 소리글로 생겨 난 것이다. 그러므로 訓民正音에서는 이 한글로써 純然히 말의 소리만을 적어 보게 되었다. 그래서

사르미(人이)

말쓰미(語가)

이셔도(有하여도)

머거(食하여)——(이것만은 類推作例)

의 式으로 적었으나,

月印千江之曲에서는 말서 文法的 意識이 들어나게 되어서 卽, 글이란 것은 말의 소리만 적는 것이 아니라 말의 뜻도 아울러 적는 것이란 생각이 생기게 되어서,

사람이

날쌘이

잇어도

먹어

의 式으로 적게 始作하였다. 그래서 거기에는 「값」(價) (그 책 第八卷 九十四張)이란 記法까지 생기게 되었다.

그러다가 儒敎의 經書諺解에서나 基督教의 聖經에서나 다 大體로 單語獨立 主義와 語幹과 語尾와의 分離主義에 依하여 조선글을 적었음은 一般의 다 아는 바이다.

그러하여 오늘날에 와서는 조선글을 적는 법이 이 두가지 主義가 確立된 것은 到底히 否認할 수 없는 바이다. 이를테면

사람이, 사람은, 사람도,

먹어, 먹으니, 먹다,

읽어, 읽으니, 읽다.

로 적는 것은 누구를 勿論하고 다 實行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쓰게 된 것은 實로 조선말 및 조선글의 歷史的 自然的 發達이요, 決코 周時經이란 最近의 一個 學者의 唱導로 말미암아서 그러 된 것은 아니다.

그러한데 이제朴님은 「머그니, 머거, 먹다」의 記法을 主張하는 모양이니, 이는 도모지 上記와 같은 朝鮮語 및 朝鮮文의 歷史的 自然的 發達에 對한 無知의 逆行이라 아니할 수 없다.

(八) 그뿐아니라 우리 말에는 받침잇는 말과 없는 말이 自然的으로 分化되어서 文法上 特殊形式을 取하게 되었다. 卽 이틀씨(名詞)에는 받침잇는 말에 붙은 도와 받침 없는 말에 붙는 도와 各各 다르게 된 것이 많으니, 이를테면

이름씨	로 씨
새	가, 는, 들, 와, 로,
범	이, 은, 을, 과, 으로,

와 같으며,

풀이씨(用言)에서는 줄기의 끝날래(末音節)가 받침이 있고 없음을 따라서, 그에 붙는 도움줄기(補助語幹)와 씨끝(語尾)이 서로 달라지게 分化되었나니, 이를테면

음주씨의줄기		도움줄기	씨 끝
받침없는	가	시	니, 면
받 침	막	으시	으니, 으면
잇 는	읻	으시	으니, 으면

에서와 같다.

이러한 이름씨와 풀이씨에 共通的으로 分化된 文法上 特殊形式을 設覺하고서, 「머그니, 머거, 일그니, 일거」로 적어 「머그, 일그」로써 그 으뜸꼴(基本形)을 삼고져 함은 너무도 無法한 獨斷의 舉措라 아니할 수 없도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름씨도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사라므, 사라마, 사라미, 사람도」

「머그, 머가, 머기, 머도」

와 같이 써야만 그 文法의 體系가 있게 될 것이 아닐가? 그러나 이것이 어찌 웃엽지 아니한가?

(3) 둘째 풀이법의 둘째것(곧 「잡」을 줄기의 基本形으로 잡고, 「잡으」는 그의 늘어진 꼴로 보는 법)에는 이러한 까닭을 붙일 수 있다. (이것을 세우는 「엑칼트」님이 이 까닭을 말함은 아니다.)——말의 歷史的 變遷의 事實은 어떨든지간에, 오늘날의 말을 標準삼아 본것 같으면, 「먹다, 잡다」 따위가 그 으뜸꼴인즉, 따라 「먹」이 그 줄기의 으뜸꼴이다. 그런데 이것이 경우를 따라서 늘어져서 「먹으」로 된 것인즉, 「먹으」 또는 「머그」로써 늘어진 줄기(Eweeiertere stamm.)로 봄이 옳겠다고——。그러나 [이 理論이 現代 말을 標準삼는 것인 이란치 時代錯誤의 批評을 免할 수 있겠지마는, 그 남아지의 批評은 그대로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것도 取할 수 없겠노라.

(4) 위에 들어 온 모든 법을 다 버리고 나니, 남은 것은 곧 셋째 풀이법 곧 「먹, 잡」을 줄기로 보고, 「으」를 그 앞의 것에 붙여서 「으시, 으니」를 도움줄기, 씨끝으로 보는 법)하나 뿐이다. 우리는 이 셋째 풀이법을 取하노니, 그 까닭은 이러하다.

(7) 오늘날의 말로써 보면, 앞에 든 보기말 「먹다」의 줄기의 으뜸꼴이 「먹임」이 分명한 事實이다. 이는 인재 幾個의 文法家가 새로 立說하는 바가 아니라, 一般의 言語意識에 비취어 보더라도 그러함을 알지니, 곧 누구를 勿論하고 識者는 반드시 「먹다, 먹어, 먹으니」로 적는 것은 그 一般的 言語意識이 「먹」은 줄기로 잡고 「으니」를 한 씨끝으로 잡는 的確한 證據이다. 이제 그 줄기의 으뜸꼴이 「머그」임을 主張하여, 그 맞출법을 「머그, 머거, 머그니」로 적어야 한다 함은 現代의 一般 言語意識에 違反된 理論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앞에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말에는 받침 잇는 말과 받침 없는 말이 그 앞에 다른 말을 붙일 적에 文法的으로 特殊한 形式을 取하게 되어 있다. 그리 한즉 이제 이와 같이 「먹다」의 줄기를 「먹」으로 잡고, 그 씨끝에 「어」와 「으니」의 따위가 있음을

풀이합은 저 이름씨의 「먹」(墨), 「집」(家)에 「이나」와 「으로」 따위의 도가 붙음을 풀러 합과 서로 符合하는 體系的 說明法이 된다。

上記와 같은 一般的 周到한 見解아래에서 우리는 朴님의 所謂 原段原音說이 取할 것 없는 생각임을 徹底히 밝혔다 고 생각한다。

四. 奇怪한 原段音의 種別

朴님은 原段音을 左記 七種으로만 區別하였다。(朝鮮語學講義要旨 111頁)

1. 아段.....去가, 望바라
2. 어段.....立서 (이 單語뿐)
3. 여段.....鉦켜, 敷과
4. 오段.....來오, 學배호
5. 우段 (ㄱ)普通.....借꾸, 收거두
(ㄴ)特殊.....易쉬우, 助도우
6. 으段.....大크, 深기프
7. 이段.....負지, 腥비리

이것만으로는 아무 怪異한 것도 없다。그러나 이밖에는 도모지 所謂 原段音이란 것이 없다 고 獨斷하고서, 實際의 말을 自家의 偏僻한 獨斷的 理論에 依하여 마음대로 改造를 敢行함은 너무도 無知의 大勇이라 아니할 수 없다。곧 原段音을 上記 七種에만 限한 朴님의 見解에 依하면

개다(晴), 깨다(目星), 굳세다(強), 메다(荷), 되다(成升), 쥐다(把), 뛰다(跳走)
여의다(死別)

란 말은 없다 한다。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括弧內는 우리들이 적는 법이 니 서로 對照해 보라)

- 날이 가이다(晴)
- 너불이 잘 가이것소 (朝鮮語學要旨 150頁) (잘개것소)
- 宋氏에게 보나이오 (要旨 168頁) (보내오)
- 굳서이다(強) (要旨 頁) (굳세다)
- 총을 머어라(荷) (要旨 152頁) (메다)
- 사람이 도이다(爲) (되다)
- 살을 도이다(升) (되다)
- 갈을 주이다(把) (要旨 150類例)
- 꽃이 꾸이오 (要旨 193頁) (피오)
- 콩이 루이다(跳躍) (뛰오)
- 부모를 여이다(死別) (여의다)

朴님 얼마나 大膽스러운 文法學者입니까? 우리 생각에 依하면——아니, 世界 文法 學者의 見解에 依하면 文法이란 것은 事實에 있는 말의 법을 그 말에 基因하여서 찾아 整理하는 것이요, 決코 事實에는 도모지 없는 法을 創作한다든지, 또는 自家의 獨斷으로 事實의 言語를 제마음대로 生殺 左右하는 權能은 가진 것은 아니다。그러한데 이제 우리 조선의 文法學者 朴님은 自家의 獨斷에 依하여 우리말을 마음대로 生殺改造를 恣行

하니, 이는 越權이 아니면 無識이요, 無識이 아니면 大膽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이제 물러가야 기만히 朴님이 原段을 上記 七種에 限한 心理過程을 推案하여 보면 實로 抱腹絶倒할 일이 있음을 發見하겠다. 무엇이나? 다름이 아니다. 日本文法에서 段의 名稱을 그 五十音圖의 固定된 一行의 字音에 限하여 「ア段, イ段, ウ段, エ段」으로 부른다. 그리고 活用の 種別도 그 一行字數 範圍內에서 「四段活用」이니 「二段活用」이니 부른다. 이는 日本의 말과 글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는 것인데, 말과 글이 그것과 다른 朝鮮말에 다가 그것을 그대로 그려다 쓴 것 같다. 곧 朝鮮글에서 俗間에 쓰는 本文(反切)이라 하는 것에는 一行의 字數排列이

아야어여오오우유으이으

만이 있고,

애애에에외외위위의이

는 없다. 그래서 朴님은 「아야어여오오우유으이으」에만 原段音을 求得하고, 「애애에에외외위위의이」에서는 그 原段音을 求하려고 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過速輕便한 模倣이 朴님의 理論과 實際를 너무도 멀리 具全한 體系와 眞正한 事實性에서 떠나게 한 것이다.

五. 原段略音의 說明이 非科學的이다

朴님은 原段原音이 短促히 發音되어서 略音이 생긴다 한다. 그런데 이 略音의 說明이 科學的 見地로서는 到底히 承認할 수 없는 點이 많다.

(1) 原音 「으」가 줄어들고는 그 대신에 硬音調가 생긴다 한다. 이를테면 (前書 116 頁에서)

原 音	略 音	便宜上 略音의 發音을 表現함
(ㄱ) 抱 아느고	안 // 고,	안ㅅ
植 시므고	십 // 고,	십ㅅ
悲 서르다	설 // 다,	설ㅅ
(ㄴ) 作 지으며	지 // 며,	지ㅅ
酌 부으며	부 // 다,	부ㅅ

와 같은 이것라 한다. 그러나 도대체 韓소리 「으」가 줄어들면 닿소리에 硬音調가 생긴다 함은 무슨 理致인가? 이런 理致는 世界聲音學에 볼 수 없는 것이라 하노라.

그러나 말 그것으로 본다면 앞에 든 보기말에서 그 아래 닿소리가 되게 남은 事實이다. 그러나 이것은 決코 朴님의 主張과 같은 理由에서 그러 된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본다. 곧 上舉 例中에서

(ㄱ)은 元來 「십고, 안고」 따위의 「고」가 口소리 「ㄱ」「ㄴ」아래 그 影響을 받지 아니하려고 發音上 絶로 단단하게 된 것이요(地方을 따라서 그 「고, 다」를 도모지 되게 내지 아니하는 데가 있음), 決코 「으」가 줄어진 때문은 아니다. 만약 韓소리 「으」가 줄어들면 「硬音調」가 생기는 音理가 있으면, 어째서 朴님의 말과 같이

「머그자」는 「먹 // 자, 먹ㅅ」로

「자브고」는 「잡 // 고, 잡ㅅ」로

「아느네」는 「안 // 네, 안ㅅ」로

되지 아니하는가。

(ㄷ)은 元來

「짚다——→짚다」의 「ㅈ」이 「지으며」에서,

「붓고——→붓고」의 「ㅈ」이 「부으며」에서,

곧 홀소리와 홀소리 사이에서 살아진 (不發된) 때문이지, 決코 「지으며」의 「지으」가 根本이 되고, 그것이 닿소리 ㄱ이나 ㄷ우에서 「으」가 빠지는 대신에 硬音이 생겨서 「지쑤, 지쑤」가 된 것은 아니다。

(2) 原音 「흐」가 줄어들고는 「激音調」가 생긴다 하여, 그 例로 (前掲書 116頁)

노흐다——→노ㄷ다 (發音表記 노라)

可하(ㅎ)다——→可ㄱ다(ㄷ 가라)

만흐다——→만ㄱ다 (ㄷ 만라)

을 든다。그러나 朴님은 「激音調」發生의 音理는 說明하려고도 아니하고, 다만 「흐」가 全然히 省略되는 대신에 激音調가 생긴다 하여, ㅎ과 ㄱ, ㄷ이 서로 合하여 激音 ㄱ, ㄷ 됨을 否認하니, 이는 정말 알 수 없는 音理說明이다。우리의 생각에 依할 것 같으면, 元來

「종가」「맑다」의 ㅎ과 ㄷ,

「可하다」의 줄어진 形 「可하다」의 ㅎ과 ㄷ,

이 서로 合하여 激音 ㄱ으로된 것이다。이는 나의 私見이 아니라, 世界音學의 共認하는 眞理이다。朴님은 이것을 否認하고, 神秘的으로 「흐」가 全然 沒沒하는 대신에 激音調 ㄱ이 생겼다 하니, 이는 科學上의 一種의 神秘主義라 할 수 밖에 없다。

(3) 朴님은 語尾音 全體가 省略되는 單語의 例로 (前掲書 115頁)

업스며——업고 (「스」가 全然 省略)

안즈며——안고 (「즈」가 ")

할트며——할고 (「트」가 ")

을 들고, 또

발브니——발고 (「ㄹ」과 「으」가 各各 全然 省略)

일으니——의고 (「ㄹ」과 「으」가 ")

다르니——다고 (될시옷만이 ")

를 말하고, 또

깃브니——깃브고

부르니——부르고

는 하나도 省略되는 일이 도모지 없음을 認定한다。

이와 같이 어떤 것은 도모지 省略되는 일이 없고, 어떤 것은 「ㄹ」과 「으」가 各各 同時에 全然히 省略되고, 어떤 것은 「스, 즈, 트」가 全然 省略되었다 하니, 이것이 大體 어떠한 聲學上 또는 文法學上 理致에 根據한 것인가。우리는 朴님의 文法說明이 너무도 素朴의 이요, 非科學的임을 指摘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우리의 생각에는 우리말이 안줄어지는 것과 줄어지는 것이 다 各各 相當한 理由가 있기 되는 것이지, 決코 朴님의 說明과 같이 그렇게 無法하게 마구 줄어지는 것이 아니라 히노라。

六. 變動段의 虛偽

(1) 조선사람의 實際的 語義에 依하면 이를테면

「먹어」의 「어」

가 저

「먹다」의 「다」

「먹으니」의 「으니」

와 對等의 씨끝(語尾)이요 (設令 씨끝이란 생각을 한다더라도 「도」하고는 꼭 할 것임) 결코 그 사이에 等級的 種別的 差異가 있는 것은 아니다。그런데 朴님은 그 中에서 特別히 「떠거」만을 變動段이라 하여, 그 一流의 無意味의 語尾의 變化라 하여, 저 「먹다, 먹으니, 먹고」 따위와 區別함은 도모지 實際 語感을 無視한 일본말본의 잘못된 模倣에서 생긴 結果라 하노라。

(2) 그리하여 朴님은

보아, 주어, 기어

따위는 쏠혀 없고, 다만

봐, 직, 겨

만이 있다 하니, 이는 온전히 偏見에 잡히어서 言語의 事實을 살피지 못한 獨斷이라 아니 할 수 없도다。

우리의 所見에 依할 것 같으면,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말인데, 뒤의 것을 앞의 것을 速히 말하고저 줄인 形이다。이것은 조선사람 쳐놓고는 누구든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의 眞理다。이것을 朴님의 自家의 偏見을 세우기 爲하여, 實際에 儼然히 存在하는 말을 任意壟斷하려 하니, 이는 確實히 本分을 잊은 文法家의 僭越이 아님을 누가 辯護할 수 있으랴!

(3) 그는 다른 말들은 그대로 억지로라도 自家의 所見대로 變動段을 同一行에서의 變形이란 것을 만들어 내었지마는,

하야, 되야(되어), 이야(이어)

에 이르러서는 到底히 自家의 偏見대로 料理할 수 없음을 發見하였다。그리하여 萬不得已의 窮策으로 「特別한 規例로 語尾에 한 音(야)이 添加되어서 變動段으로 되는 單語가 있음」(前揭書 113頁)이라고 하고서 滿足하는 모양이니, 이런 대에서도 自己의 全體系에 對하여 反省을 加하지 아니함은 實로 愛惜한 일이다。

다시 나아가야 생각하건대, 朴님은 上述과 같이 너무도 열은 見解와 模倣에서 우리 말의 「原段音」이란 것을 諺文 本文圖(反切)의 一行에만 限한다고 速斷하여 놓고 보니 까 그의 이른 「特別 音添尾用言」이란 것이 겨우 「하야, 되야, 이야」 셋에 그쳤지,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그가 正當하게 「애, 예, 예, 외, 위, 의」의 「原段音」(即 語聲末音)을 認定하였든들, 그 스스로 세운 法에 어긋아지는 말이 맞는 말보다 더 많음을 發見하고서, 自家의 學說이 너무도 事實에 違反하는 獨斷임을 혹 깨쳤을는지도 모르겠다。아! 한 걸음을 잘못 드며 놓았음으로 해서, 두 걸음, 세 걸음, 자꾸, 잘못된의 구령으로 들어 놓게 되도다。그러므로 學問에는 根本 方法과 方向의 指針이 무엇보다 먼저 必要한 것임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깨치지 않을 수 없다。

七. 極度の 分析的 品詞論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朴님은 항상 입만 열면「周說」을 反駁하기를 일삼지마는, 우리로서 보면 그는 그學問의 方法에서는 全然히 周先生의 分析的 方法을 고대로, 아니 훨씬 더하게, 繼承하고 있다. 그래서 周先生은 「먹었다」를 「먹」(음주씨)과 「었다」(끝로)로 보았고, 金料奉님은 「먹었」과 「다」로 보았음에 對하여, 朴님은 「먹」(음주씨) 「었」(助用詞), 「다」(로)의 세 씨(品詞)로 보았다. 그래서 助用詞의 創始로써 큰 자량을 삼는 모양이다. 이것은 分析을 爲主하는 態度에서 본다면 확실히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할 만한 것인즉(그러나 그의 나아간 것은 品詞分類의 分析的 態度뿐이요, 그 態度에 依한 分析 自體는 아직 未及한 點이 여간 많지 아니하다.), 자랑이라든 一方의 자랑이라 해도 좋겠다. 그러나 그 자랑이 科學的으로 보아 普通妥當性이 있는 眞正한 자랑은 되지 못한다. 왜 그러냐하면 대개 分析的 說明이란 것은 우리말의 綜合的 性質을 正當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朴님의 極端의 分析的 態度에 依하여 본다면,

먹 이 시 었 겠 습 더 이 다

가 모두 여덟 개의 낱말(單語)로 되어야 한다. (「습」「더」를 分析함은 그의 未及에 對한 나의 補充이다.) 이와 같음은 實際의 語感과 一致되지 아니할 뿐아니라, 도대체 品詞分類의 根本義를 忘却한 것이 된다. 이러한 極極의 分析的 分類에 依하여 品詞를 獨立시킨다면, 조선글은 읽기와 깨치기에 말할 수 없는 不便과 不利를 입어, 그 結果, 조선말은 到底히 西洋諸語에서의 같은 綜合的 發達을 일울 수 없을 것이다.

「分析에서 綜合으로!」 이것은 今日的 言語學의 한 眞理이다. 近者에 日本의 新進文法家들이 거의 다 이 綜合的 方面으로 나아가고 있음은 事實이다. 일본 京都帝國大學 敎수요 일본에서도 言語學의 權威者인 文學博士 新村 出님 같은 이도 日本語法書가운데 最良書는 英人 Aston著 日本語法과 Chamberlain著 日本文法이라고 推薦하였다. 이는 그네들의 著書가 品詞分類 및 語法의 說明이 모두 大槻 文彦님式의 分析法을 버리고, 綜合性을 取한 때문이라 이것도 確實히 參考할 만한 말이요, 그 책도 우리에게도 좋은 參考書일 것이다. 조선말본에 關한 外人의 著——特히 Eckardt님의 著 같은 것은 다 이 綜合的 文法에 依한 것이다.

八. 用言과 承接語

먼저 用言과 承接에 對한 朴님의 說明의 要旨을 적으면 이리하다.——

(一) 助詞의 承接.

(1) 用言의 原段原音에 承接하는 助詞(A—種助詞)의 例.

ㄴ, ㄹ, ㅁ, ㄴ다.

오, 마, 며, 너.

(2) 用言의 原段略音에 承接하는 助詞(A二種助詞)의 例.

고, 게, 다, 자,

(3) 變動段에 承接하는 助詞(B種)의 例.

서, 야, 요, 라, 도.

그러한데 用言에 各種 助詞가 承接하는 例.

用	言	助詞	用	言	助詞
原段原音	植	시므	며,	可하	며
略音		심	고,	可ㄱ	고
變動段		시며	서,	可하야	서

(二) 助用詞의 承接.

- (1) 用言의 原段原音에 承接하는 것에는 尊敬의 뜻을 나타내는 「시」가 있고,
 - (2) 用言의 原段略音과 略音없는 原段原音에 承接하는 助用詞에는 時相 未來의 「개쓰」(「개쓰」가 무엇인가? 차라리 「겻으」 또는 「게쓰」일 것이지)가 있고,
 - (3) 用言의 變動段과 變動段音이 따로 없는 用言의 原段原音에 使用되는 助用詞에는 時相 過去 쓰가 있으며,
 - (4) 原段原音과 略音과 變動段에 無法則하게 境遇를 따라서 承接하는 助用詞에는 被動 「히」「디」가 있음,
- 그러하여 모든 助用詞의 承接하는 例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用	言		承接하는 助用詞				
	去	用	執	尊敬	未來	過去	被動
原段原音	가			시	개쓰	쓰	
		쓰	자브	시	개쓰		히
原段略音			잡		개쓰		히
變動段			자바			쓰	디

以上은 「朴說」의 要旨이다。(要旨 119頁—122頁)。

인제 우리는 簡單히 이것을 評하여 보자.

(一) 「朴說」의 用言과 承接語와의 關係는 너무도 無意味한 錯亂한 聲音接續의 諸 境遇를 羅列하여 語法的 理解를 攄得하기 正말 極難하다.

(1)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朴님은 아무 意味關聯이 없는 이른 段活用을 말하였기 때문에 그 段活用の 各形에 分配된 承接語의 承接關係도 何等의 法則的 意味를 일우지 못한다. 假令 助詞 「며」는 原段原音에 붙어서 「시므며」로, 「고」는 原段略音에 붙어서 「심고」로, 「서」는 變動段에 붙어서 「시며서」로 된다 하니, 이것이 도대체 무엇때문에 그러 되는가? 朴님은 이런 境遇에 기껏 말한다 하여 「그것은 音과 音과의 接續上 便否關係라」고만 한다. 그래서 그의 文法에서 모든 助詞를 何等의 語法的 原理와 法則이 없이 段活用の 어느 段音에 붙는가에 依하여 A1種, A2種, B種의 三種으로 가를 뿐이다. 그러하여 —히 붙여 보아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의 文法的 體系의 中心作業이 되어 있다. (그의 著 朝鮮語體系 一覽을 보면 이러한 無條理한 羅列에 何等의 論理的 理解를 할 수 없음을 놀카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文法論의 講演을 들을것 같으면

사람의 思想과 關聯있는 語法이 아니요, 오로지 聲音接續의 無條理한 演習에 不過함을 누구든지 發見하지 아니할 수 없다.

(2) 그러나 그의 規定대로나 다 될것 같으면 그런 가운데서도 聲音的(語法的은 못되더라도) 法則일망정 成立되겠지마는, 우리의 보는 바에 依하면 그것조차 成立되지 아니한다. 이를테면 助辭「고」는 原段略音에 붙는다 (머그고—→먹고, 지므—→십고)하였지마는, 「잡그고」(鎖)의 「고」는 그 이른 原段原音에만 붙고, 決코 「잡고」와 같이 略音에는 붙지 아니 한다. 곧 「잡고」도 없고 「잡고」도 없다.

(3) 말이란 것은 소리와 뜻의 두가지 要素(要素)으로 되었나니, 말에 關한 研究는 이 두 方面이 있다. 그래서 소리를 오로지 研究하는 것이 一個의 自然科學으로서의 聲音學(Phonetics)이 있고, 말본갈(Grammar 語法學)은 말의 뜻의 方面을 研究하는 것인데, 낱말의 낱말을 分類하여 研究하는 것이 씨갈(Etymology 品詞論)이요, 낱말이 모여서 된 一個의 完全한 思想을 表示한 文(文)을 研究하는 것이 文法(Syntax 文章論)이다.

다시 말하면 말에는 소리와 뜻의 두가지 方面이 있으며, 그 뜻이 더 重要한 것이 된다. 우리가 普通 말이라 하면 곧 이 뜻의 方面을 가리킴이 된다. 假令 「내가 말을 잘못 하였다」라든지, 「나는 英語를 모른다」든지 할 적에는 決코 그 소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가리킴이 되는 것은 우리의 日常 言語生活에서 共認하는 바이다. 말의 可感性의 基礎는 勿論 소리이지마는, 그 소리가 말되는 所以緣은 그 소리가 사람의 思想을 담아서 뜻을 가진 때문이다. 만약 이 뜻이란 內容이 없고, 다만 소리란 形成만 있을것 같으면, 그것은 혹은 훌륭한 音樂은 될지언정 決코 말은 되지 못한다. 말이 말 됨은 그 뜻에 있다.

그런데 앞에도 말한 바와 같이, 말의본(법)을 研究하는 말본갈(語法學)은 말을 그 뜻의 方面에서 그 모든 본(법)을 研究하는 것이다. 다만 소리갈의 知識은 말본갈의 基礎知識이 되어서, 말의 法則을 研究하는대의 補佐가 될 말이다. 그러므로 말본에서의 모든 法則은 첫재 사람의 思想과 關聯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語法學의 說明이 그 말의 內容인 사람의 思想과는 아모 關聯이 없다 하면, 그것은 決코 正當한 意味에서 말본갈 곧 語法學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나 一個人의 僻論이 아니라, 試驗으로 世界各國語의 語法書를 들쳐 보면, 누구든지 다 이 理致를 承認하지 아니치 못할 것이다. 그러한데 이제 우리 朴님은 뜻과는 도리어 關聯없는 語法을 嘔嘔히 力說하여, 그 法則이 도모지 意味와는 아무 相關없음을 도리어 한 特色으로 자랑을 삼는 모양이다. 우리도 朝鮮에서 世界 無類의 자랑거리가 發明되기를 바라는 사람의 하나이지마는, 이러한 獨創은 普通妥當性を 要求하는 科學的 立場에서 到底히 歡迎할 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음을 勿論 設想하리라.

(二) 朴님의 段活用은 그 承接語와의 關係에서 보아, 二次, 三次乃至 數次의 無意味의 承接를 하여서 비로소 그 運用의 目的을 達하는 것이 되니, 이는 비록 다른 點에서는 十分한 理論이 된다 하더라도 言語의 運用의 法則으로는 極 不便한 것임을 免치 못한다. 이를테면

(1) 「먹」은 이미 「머그」의 段活用形인데, 아직은 아무 뜻이 없다.

(2) 거기에다가 「助辭」 「다」가 붙어서 「먹다」가 되어야 비로소 運用上의 뜻을 일우

게 되니, 이는 二次에서 그 形式을 完成하는 것이요,

(3) 만약 「덕」에다가 「助用詞」인 「히」를 더 하여서는 (「덕히」만 으로서는) 아직 運用上的 完形을 일우지 못하고,

(4) 거기에 다시 「助辭」인 「다」를 더하여야 비로소 한 定結된 運用形式을 일우게 된다. — 이리하여 數次的 承接을 달나 해야 비로소 그 運用上的 한 形式으로 完成하게 된다.

우리의 보는 바에 依하면, 世界 어느 나라말에서든지 풀이씨의 끝바꿈(活用)의 第一次의 모든 形式은 各各 運用上的 한 形式으로서의 구실을 하는 것이다. 假令 日本文法에서 四段活用の 例로

ヨ
マミムメ

가 各各 運用上的 一定한 意義와 完結形을 일움과 같은 것이다. 다만 그 가운데서 「ヨマ」가 完結이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勿論 그 뜻인즉 잊지마는) 全혀 綜合的 說明法에 依하는 學者는 이것을 助辭와 合하여서 「ヨマバ」까지를 한 活用形으로 푸는 이가 있으며, 命令形에서도 四段活用 以前에서는 助辭까지 合하여서 한날의 完結된 活用形으로 본다. 「あへこ, ウケヨ」와 같은 따위다. 英語에서도 다 그러하다. — 要컨대 二次 三次의 活用과 承接을 重複하여야 개우 意義있는 完結된 한 形式을 일운다는 것은 너무도 거북한 說明이다.

九. 끝맺는 말

나는 위에서 朴勝彬님의 段活用說을 批評한 結果, 그의 主張이 너무도 非科學的 獨斷임이 餘地없이 들어났다고 생각한다. 그러하여 우리는 眞正한 科學的 見地에서 그의 段活用說에서 한가지도 取할 만한 것을 찾아 낼 수가 없음을 斷言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는 偏頗한 思想과 獨斷의 先入見으로써 「周說」에 對한 「朴說」을 세우기 爲하여, 儼然한 客觀的 言語事實까지를 着色改造하여 가면서, 自說의 眞理(?)를 主張하였다. 그러다가 그 偏見에 依한 擅斷的 改造에 儼然히 抗爭하는 言語事實이 眼前에 나타날 적에도, 이에 對하여 根本的 自己反省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만 「特別」한 것으로만 보아 넘기고 滿足하였다. 그 意氣인즉 壯하지마는, 그 學問의 體系인즉 바르지 못하다. 佛蘭西의 學者 돌고—(Turgot)는 말하였다. 「學者가 첫째 할 일은 自己의 體系의 創立할 것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에 對하여 倦厭의 情을 품을 것이다。」 이 말은 내날 없이 學에 뜻하는 이의 맞당히 服膺하여야 할 格言이라 하노라. (1932. 12. 3)

本 會 記 事

一. 月例會

1933年 2月 11日 下午 三時에 本會館에서 月例會를 열고 朝鮮말 活用問題로 討論하다.

1933年 3月 11日에 열리게 된 月例會는

朝鮮語 綴字統一案 修整委員會를 그날에 열게 되는 關係로 不得已 열지 못하다.

二. 朝鮮語 綴字統一案 修整委員會는 다음과 같이 열다.

(1) 1933年 3月 1日 下午 七時半에서 全 十時半까지 本會館에서,

(2) 1933年 3月 4日 下午 七時半에서

全 十時半까지 寬勳洞 同德女學校에서,
 (3) 1933年 3月 6日 下午 七時半에서 全
 十時半까지 本會館에서,
 (4) 1933年 3月 8日 下午 七時半에서 全
 十時半까지 本會館에서,
 (5) 1933年 3月 11日 下午 七時半에서
 全 十時半까지 本會館에서,
 (6) 1933年 3月 12日 下午 二時로 全 十
 時半까지 杏村洞 崔鉉培님 집에서 (以上
 共計 六回 二十二時間半)。

三. 朝鮮語 綴字修整案小委員會는 다음
 과 같이 열다. (일 進行의 便宜를 爲하여
 今年 一月 月例會에서 申明均, 金善琪, 李

克魯 三氏로써 小委員會를 組織케 하다.)
 (1) 1933年 2月 16日 下午 七時半에서
 全 十時半까지 弼雲洞 金善琪님 집에서,
 (2) 1933年 2月 18日 下午 七時半에서
 全 十時半까지 弼雲洞 金善琪님 집에서,
 (3) 1933年 2月 23日 下午 一時에서 全
 六時까지 本會館에서,
 (4) 1933年 2月 24日 下午 一時에서 全
 六時까지 本會館에서,
 (5) 1933年 3月 3日 下午 七時半에서 全
 十時半까지 弼雲洞 金善琪님 집에서 (以
 上 共計 五回 十九時間)。

여 쫓는 말슴

◇우리 한글運動이 요즘
 에 이르러 놀랄만치 크게
 발전되어 갑니다。學校의
 敎科書가 新綴字로 되고,
 各種 新聞이 또한 그리 되
 고, 그 밖에 나날이 박아
 내는 雜誌와, 書籍이 十에
 八九는 다 新綴字로 됩니
 다。이만해도 우리의 運動
 은 큰 成功이라고 보지 아
 니할 수 없습니다。

◇한글運動에 한 혹작질
 군이 되는 朴勝彬氏라 하
 는 분이 自家學說로 가지
 고 어떠한 소리를 하겠거
 나,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는 무슨 褻見이 있으랴라
 는, 그는 글로나 말로나
 항상 우리 運動에 對하
 야 종종 頂讚지 아니한 態
 度를 보인 적이 있었습니

다。그래서 去年 十一月에는
 東亞日報社 主權로 소위 한
 글討論會란 것을 열고, 個
 人的 資格으로 朴勝彬氏 對
 李熙昇, 崔鉉培, 申明均 諸
 氏의 한글討論이 있었습니
 다。그리하여 여태까지에
 自信이 있노라고 하든 朴
 氏는 할수없이 머리를 숙
 이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실은 글은 그
 한글 討論會에서 李, 崔,
 申 세분의 講演稿를 약간
 修正하여 내는 것입니다。
 좀 길다는 혐의가 있으나,
 이것이 모두 朴氏와의 말성
 거리가 되는 問題이므로
 누구나 한번 읽어두는 것이
 좋을가 합니다。

◇崔鉉培氏의 「풀이씨 끝
 바꿈에 對한 論」은 前號에
 서 이어왔으며, 申明均氏의
 「朴勝彬氏의 所謂 硬音이
 란 歷史上 聲音上 아무 根

據도 없다」는 次號로 이어
 가게 됩니다。

寄贈 받은 雜誌

△新生(三, 四月號), △孤兒(三, 四
 月號), △아이생활(三, 四月號), △
 前線(八, 九號), △宗教時報 三, 四
 月號), △天道教會月報(三月號)

昭和八年 四月 廿七日 印刷
 昭和八年 四月 廿九日 發行

「한글」 第七號

定價 { 一部 十五錢
 六個月 八十錢
 一箇年 一圓六十錢

編輯兼 京城府 水標町 四二
 發行人 申 明 均
 印刷者 京城府 水標町 四二
 李 炳 華
 印刷所 京城府 水標町 四二
 新 少年社 印刷部
 發行所 京城府 水標町 四二
 朝鮮語學會
 電話(光)一三九九番
 振替京城一〇〇四四番

京城府 安國洞 一五三
 總販賣所 中央印書館
 電話(光)一一九三番
 振替京城一二一七八番

昭和八年五月一日發行(每月一回一日發行)
 昭和七年五月一日發行(第三種郵便物認可)

周時經先生遺稿

定價 一圓
 書留料 十六錢
 送

內容 { 先生傳記
 (朝鮮)語音學
 (朝鮮)語文法
 말의소리

이 책은上記와 같이 先生의 傳記와 著書를 한데 모은 것이
 을시다。國定教科書로부터 其他 書籍, 新聞, 雜誌 할것없이 모
 두 한글로 改正되어 우리 言文도 차차 바른 길로 잡혀가는 今
 日에, 우리는 새삼스러이 周時經 先生을 感慕하고 記念하지 않
 을 수 없습니다。이 한글을 科學的으로 研究해서 바른 方法을
 우리에게 指示한 이는 周時經 先生이을시다。今日 한글에 對해
 서 무어라고 말하든지, 그 根本은 모두 周先生으로부터 發한 것
 이을시다。그러므로 한글의 查된 意義의 方法을 알려면 先生의
 著書를 읽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한글歷代選

定價 一圓
 書留料 十六錢
 送

內容 { (一) 訓民正音, 龍飛御天歌 (二) 月印千江之曲
 (三) 杜詩諺解 (四) 訓蒙字會 (五) 松江歌辭
 (六) 四書諺解, 小學諺解 (七) 創世紀

이 책은上記 諸書를 한데 모은 것인데, 一一이 믿음직한 原
 本을 求하여, 꼭 그대로 翻印한 것이을시다。얼마나 稀貴한 珍
 書입니까 우리 文學과 語學의 研究에 뜻 있고 또 한글 沿革을
 을 알고저하신 이는 勿論이요, 其他 누구든지 한번 읽고 또 永
 遠히 간수하지 아니치 못할 民族的 國寶외다。

發行所

京城府安國洞一五三
 振替京城一二一七八

中央印書館